



“안부 묻고 건강 다지고... 이 맛에 나옵니다”

남가주총동창회 봄철 골프대회 성황, 120여 명 모여 끈끈한 ‘동문 우정’ 다져



【기사: 이종호, 남가주총동창회 사업국장】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한귀희) 2019년 정기 동문 골프대회가 지난 13일(토) LA 한인타운 인근 패서디나 브룩사이드 골프장에서 열렸다. 선수, 게스트, 임원 등 120여 명이 참가한 이날 골프대회는 모두 25개 조로 나누어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처럼 싱그러운 자연에서 함께한 동문들은 대회 시작 한 두시간 전부터 도착,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애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 라운딩이 끝난 후에도 돌아가는 사람 거의 없이 클럽하우스 뒷풀이에 참석, 끈끈한 동문 우정을 이어갔다.

한편 본교 행사를 축하 격려하기 위해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동창회에서도 게스트로 참가해 학교 간 교류 및 친목을 다졌다. 이날 각 부문별 남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 오영문(수의대 64) / 제영혜 생활과학대(구 가정 71)

▲챔피언 : 지인수(상대 59) / 박금옥(사대 63)
▲장타상 : 최광주(연세대 게스트)/서효숙(이화여대 게스트)
▲근접상 : 조용국(사대 94) / 나은숙(이대 게스트)

<골프대회 이모저모>
○...한귀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이날 10시부터 현장에 나와 접수 부스 설치, 대진표 정비, 점심 도시락 포장 등 원활한 대회를 위해 동분서주. 접수를 맡은 일부 임원들은 참가비 80불 외에 올해 동문회비까지 받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 한편 사전 예약을 받으면서 참가자들의 요청에 최대한 맞춰 조 편성을 하고 미리 공지했음에도 현장에서 임의로 조를 바꿔달라는 요청에 골머리를 앓기도.

○...대회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겸한 뒷풀이가 클럽하우스에서 이어졌는데, 최용준 총무국장의 재치 넘치는 사회로 시상식과 경품

추첨이 이어지자 모두들 긴장 속에서도 즐거운 표정. 이날 식사는 와인을 곁들인 세련된 양식으로 대부분 만족을 표시했지만 일부 한식 애호가들은 소주나 김치, 결판된 국물이 없어 조금은 섭섭해 했다는 후문. 이를 들은 한 동문은 “그렇게 한식 좋아하면서 그동안 미국엔 어떻게 사셨는지 참 힘드셨겠다”며 한마디.

○...이날 챔피언이 된 지인수 동문이 스스로 ‘80대’임을 밝히자 20년은 젊어 보이는 얼굴과 체형에 모두가 아연실색. 지 동문은 “오늘 골프대회에 자칭 시니어 동문들도 많이 참가했는데 앞으로 시니어 소릴 들으려면 80은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좀 더 젊게 살라”는 취지로 후배들을 격려하는 흐뭇한 광경을 연출.

○...여성 메달리스트와 챔피언 수상자로 제영혜, 박금옥 동문이 호명되자 ‘너무 자주 이 상을 받는 것이 미안하다’는 분위기로 수상

을 망설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제영혜 동문은 부상으로 받은 골프공을 주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앞으로 여자 동문들도 저번이 넓어져서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수상의 기쁨이 돌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

○...이날 고대, 연대, 이화여대 동문회에서 게스트로 참가 행사를 빛냈는데, 8명 두 팀이 참가한 이화여대 동문들은 모두 초록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등장, 시선을 독점하며 골프장 분위기를 화사하게 연출. 또 고대교우회 임철호 회장은 직접 고대 게스트 선수로 뛰면서 300불 상당의 건강 기기 경품까지도 네이션해 친선 교류의 모범을 과시. 한편 이날 남녀 장타상과 근접상은 4개 중 3개를 타 대학 게스트가 차지, 서울대 동문들이 더 분발해야겠다는 자극을 주기도.

>> P 7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제28차 평의원 회의, 뉴욕

2019년 6월 21~23일 (금, 토, 일)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 카네기 홀 축하 음악회, 6월 22일 오후 8:30

호텔 예약과 음악회 등 자세한 안내는 P 18

제28차 평의원회 기초 연설 및 강연자

기초 연설자



조태열 (법대 79년 졸업)
주 UN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북핵 협상과 한반도의 장래

Amb. Cho Tae-yul is the 25th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He assumed his current position on December 5, 2016 and served as the Chair of the UN Peacebuilding Commission (PBC) for 2017. During his over 38 years of diplomatic carrier, he has held various senior positions in th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among others,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13-2016), Ambassador to the Kingdom of Spain (2008-2011), Deputy Minister for Trade (2007-2008), and Ambassador to UN Office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2005-2007). He was also appointed as member of the Advisory Group of the 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while he was serving as Ambassado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2011-2012). During his tour in Geneva, he played a key role as Korea' representative for WTO/DDA negotiations. He also served as Chairman of WTO dispute panel and Government Procurement Committee (2005-2007).

Preceding that, he had held various positions in the Korean foreign service including Director General for Bilateral Trade (2003-2005), Deputy Director General for Trade Policy Planning (2002-2003), First Secretary and Counsellor at the Korean Embassy in Washington, D.C. (1990-1993 and 2000-2002), Counsellor at Korea's Permanent Mission in Geneva (1996-2000), Director for North America Trade Division (1995-1996), and Senior Assistant to the Foreign Minister (1994-1995).

Amb. C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in 1979. He continued his studie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at the Graduate School of SNU (1979-1981)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Oxford University (1982-1983).

Amb. Cho received the Order of Service Merit (Red Stripes) in 2008 and the Grand Cross of the Order of Civil Merit, Kingdom of Spain in 2012. He is married to Kim Hyekyung and has two children.

강연자



이홍규 (의대 68년 졸업)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인의 기원과 DNA 추적

[경력]
서울대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내과 분과장 (2009년 정년) 현 명예교수
국립보건원 생명의학부 부장 역임
세계보건기구 만성병 자문관 역임

[포상]
1999. 서울시 의사회 유한의학상
2005. 대한내분비학회 남곡학술상
2008. 서울대학교 30년 근속표창
2009. 녹조근정훈장
2010. 대한당뇨병학회 설원학술상
2015. 교육부총리 표창 - 소아당뇨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학회]
대한 당뇨병학회, 대한 내분비학회 회장 역임
아시아당뇨병학회 부이사장
한국 소아당뇨병협회 명예 이사장

[저서]
- 생명의 에너지 (가이 브라운 저). 2002. 한의학 (공역)
- 내과학 2005 최신지견. 고려의학 (공저)
- 당뇨병학. 제3판. 대한당뇨병학회. (공저)
- Mitochondria in Health and Disease. Dekker, USA, 2005. (공저)
- Mitochondrial Pathogenesis- From Genes and Apoptosis to Aging and Disease. Annals of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1011. 2005 (편저).
- 바이칼에서 찾는 우리민족의 기원. 정신세계원. 2005. (편저)
- 일본인의 조상, 한국인의 조상. 시노다 겐이치 (저), 박명미 (번역), 보고사, 2008 (감수 및 서문)
- 한국인의 기원. 한국역사재단. 2010 (저서)
- 몸이 젊어지는 기술. 청림라이프, 2100 (오타 시게오 전, 김영설, 이홍규 공역)
- 당뇨, 기적의 밥상. 사이프레스 2014. (장학철, 조영연 공저)

제28차 평의원회 강연자

강연자



장태환
Univ. of California, Riverside 대학 교수

파차파 캠프 -
미주 최초의 한인 타운

현재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대학교 소수민족학과 (Ethnic Studies) 교수이며 김영욱 재미동포 연구소 소장. UC Berkeley 대학에서 한흑갈등 연구 (New Urban Crisis: Korean-Black Conflict in Los Angeles) 논문으로 박사학위 (1990)와 학사 학위(1982) 취득.

9권의 저서, 7권을 편저했으며 수십 편의 논문이 있다. 가장 최근의 저서는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 (2018),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된 외로운 여정 (2016). Korean American Pioneer Aviators: The Willows Airmen, 1920, 대한민국 하늘을 날다 (한우석 공저, 2013) Unsung Hero: The Story of Col. Young Oak Kim을 번역 출판했으며 Ethnic Peace in the American City: Building Community in Los Angeles and Beyond. New York: NYU Press, 1999 (with Jeanette Diaz-Veizades), <아시아인 아메리칸, 책세상 2004>, <미국의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 고려대학교 2012>, <What does it mean to be Korean Today?, Amerasia Journal 그리고 코리아인 아메리칸의 발자취를 따라 (한/영)가 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폭동과 인종문제에 관한 두 권의 책을 공동 편저했다. 그밖에 한흑갈등 연구와 로

스앤젤레스 폭동에 관한 수편의 논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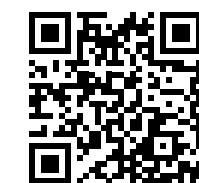
미국 공영 TV 방송인 Public Broadcasting System (PBS)에서 제작한 LA 폭동 다큐멘터리 "LA is Burning: A Five Reports from a Divided City"에 특별 출연하여 한인사회의 입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SAT II 한국어 채택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민정음 반포 549돌을 맞이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995). 그리고, 인종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로스앤젤레스 인간 관계 위원회에서 수여하며 권위있는 John Anson Ford 교육 부문 상 (1995)수상, UCLA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창립 25주년 특별 기념 행사에서 교육상 (Education Award) 수상, 그리고 Michigan State University 한국학 센터에서 매년 수상하는 The Global Korea Award를 받았다. 1994년에는 뉴욕의 SUNY at Stony Brook 대학에서 매년 1명 선정하여 주는 자랑스런 한국인 (The Distinguished Korean Award)상 수상. 2018년 재외한인 학회에서 최고 학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미주한인위원회의 이사이며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역사보존 위원회 아시안 아메리칸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제10대 미주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신 고 송순영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지도 여인 1년 반이 되어간다. 아직도 고인이 되셨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다. 미주동창회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신 송 회장님의 다음 글을 늘 가까이하며 이분께서 간직하셨던 동문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곤 한다. 그리고 보니 송 회장님의 다음 글을 많은 동문에게 소개도 못하고 혼자 지니고만 있었다. [윤상래 배]



고 송순영 (문리 52)

지성인의 동창회

지금 생각해도, 뜻하지 않게 미주총동창회 제10대 집행부(2009년 7월~2011년 6월)를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모른다. 우선 당면한 문제는 재정적 자립 문제, 월간 동창회보 발행 등이 큰 걱정거리였다.

그러나 구경회(의대 59) 부회장, 김정주 (문리 60)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능한 우리 임원들은 곧 동창회 운영에 착수하여 18차 평의원회(시카고)도 잘 치루었고, 편집위원도 주필 이윤모(농대 57) 동문의 도움으로 회보 발행도 무사히 시작하였다. 차츰 동창회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나의 불안감도 없어지고 무엇이 모교 서울대학에 걸맞은 동창회 행사가 될까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

오래동안 동문들 사이에는 동문의 우수한 두뇌자원을 조직화하여 한국의 선진화와 모교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마침 시카고에서 열린 제17차 평의원회의에 참석하셨던 이장무 총장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재임, 동창회보 2009년 7월호 참조)께서도 관심을 표명하시고 물심 양면으로 격려와 조언을 주시어 Brain Network 구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하여 고병철(법대 55) 박사님 주관으로, 모교 사무소가 있는 LA에서 2010년 11월에 "한반도의 장래: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이란 주제로 Brain Network Workshop을 갖게 되었다. 이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11명의 교수님들(1947년 입학한 선배님부터 1988년에 입학한 동문)의 명강의를 하루 종일 들었을 때, 새삼스럽게 서울대 출신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꼈는지 모른다. 서울대인의 특성을 잘 보여준 행사라고 동문들의 감탄어린 찬사도 많이 들었다.

그후 BNW는 동창회의 주요 행사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첫번째 Workshop을 성공적으로 이끈 고병철 박사의 공덕이라 생각한다. (BNW 내용은 2010년 1월 동창회보 참조)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많은 교수님들이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발표하고, 교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이 행사를 시카고에서 갖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그 당시 모교는 LA에 분교 설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하여 모교 분교 설립에 협력한다는 생각으로 그곳에서 행사를 개최했으나, 결국 모교의 계획은 무산되어 LA를 선택한 우리의 노력은 도움이 되지 못한 셈이다.

그리고 추억에 남는 행사는 LA에서 개최된 제19차 평의원회의에서 계획된 지중해 크루즈(2010년 10월 8일, 64명의 동문 가족이 9박10일간 여행)였다. 서울대 동문이면 평의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카고에서 열린 제18차 평의원회 때에 계획했는데, 역시 동문끼리의 여행과 만남은 지나고 나서도 참 즐거웠다. 처음 실행한 행사여서 준비가 미약했으나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노래하며 즐겁게 지냈다.

우리 동창회 사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회보 발행(183호~206호)도 편집위원, 임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써 착오 없이 발행되었고, 걱정했던 재정 문제도 온 동문께서 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우리 재무 박승(의대 64) 동문의 알뜰한 살림으로 삼만불 이상의 흑자를 낼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

임기를 마치면서 생각나는 우리 딸의 말이 있다. "It's a fun to work with smart people"이란 말이다. 과연 미주총동창회 회장을 맡았던 2년은 참으로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고, 항상 정확한 판단으로 편집에 도움을 주신 조대현(공대 57) 박사님, 또 성원을 주신 이승자(사대 60), 박영규(농대 57), 정호(의대 62) 동문 등 열심히 일해 준 임원들, 편집위원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 없다. 이 모든 분들이 재임 중 동창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장본인들이었다.

끝으로 시카고 서울대학교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소망합니다.

미주총동창회 제10대 회장 송순영

SNU Alumni Association USA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uaa.org / www.snuuaa.org



장성정 (법대 68)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다.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생활조건과 질을 조사하여 어느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가를 매기는 지수다. 또 이와 비슷한 지수나 통계수치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지수” “삶의 만족도 지수” “사회발전지수” “더 나은 삶의 지수” “세계행복보고서” “세계정서보고서” “인간개발 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집착되는 일이지만, 이런 지수들은 누가 언제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수치를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지수들이 발표될 때마다 그 정확성이나 객관성에 관계 없이 사람들은 관심과 호기심을 나타낸다. 우리로서는 (한국과 아울러) 미국의 순위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 수 년간 발표되는 수치들에 의하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네델란드, 스웨덴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놀랍게도 (혹은 아쉽게도) 미국은 중위권 또는 하위권에 처져 있다.

이런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결코 살기 좋은 나라도 아니고, 미국인들은 그들의 삶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있고 행복하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에 문제가 많다는 말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이고 지금도 세계 최대강국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이 많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어 결코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이러니컬 하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사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행복지수 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각종 통계 수치를 보아도 미국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와 연도 등을 생략하고 최근 몇 년간 발표된 각 분야 통계에서 주요국 가운데 미국의 순위를 대충 훑어 보면.. 미국은 순위가 낮아야 좋은 분야에서는 빈곤률 4위, 영아사망률 10위, 살인률 3위, 범죄자 수감률 1위, 교통사고 사망률 3위, 비만률 5위, 자살률 20위 등으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순위가 높아야 할 분야에서는 기대수명 46위, 의료지수 30위, 학업성취도 순위 30위, 부패인식지수 22위, 사회발전지수 25위 등으로 크게 처지고 있다.

경제대국인 미국이 각종 순위에서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이유는 문화적, 역사적 요소들 때문이라고 한다. 즉, 다른 여러 나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간여하면서 사회전체를 총체적으로 다스려 나가고 있는데 반하여, 전통적으로 개인중심의 복합적 이민사회로 성장해 온 미국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다양한 행동 양태를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어 어느 때 어느 분야에서나 우열의 차이가 심하고 높낮이의 폭이 커서 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미국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궁금한 것은, 이

미국의 문제?

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더우기 지금 행복하다는 나라들 가운데 많은 나라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못 살던 나라들이었고 행복하게 보이지 않던 나라들이 아닌가. 그러던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잘 살고 행복하게 되었는가 말이다. 그래서 둘러 보고 생각해 본다.

예전엔 잘 못 살던 나라들이 이제 형편이 나아지고 살기가 좋아졌다면 그건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해야겠지만,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는 말은 원조금이나 군사원조 같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그동안 여러 가지 “미국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고생하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문제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고생을 덜기도 하고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분명한 것은 그 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때때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루어 냈고 그것들은 곧 세계의 구성구적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문제가 많은 경우 눈부신 혁신으로 이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문제’들은 오늘날 인류가 살아가는데 유용한 삶의 기초, 기반, 인프라(하부구조), 또는 플랫폼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셈이다.

미국이 그동안 세계에 제공해 온 생활인프라는, 블루진에서부터 시작하여 인터넷, 이메일, 워드와 엑셀, 맥드날즈, 스타벅스, 월마트, 제츠, 칸슈리, 힙합, 디즈니, 헬리콧,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CNN, ESPN, 우버, 그리고 마도나와 타이거우즈와 어벤져스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고, 향유하고 소비하는 글로벌 공공재화가 되었다. 이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의미와 관련이 있고 (relevant), 광범위하게 유용한데다가 (useful), 매력적이기도 하고 (appealing), 전염성이 강해 (contagious) 빠르게 널리 퍼져 나간다.

이것들은 미국인들의 생활관, 속성과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자유와 기본권 창 의의 혁신 탐구와 모험을 추구하는 것, 형식과 겉모양에 매달리지 않고 핵심과 내용을 중시하는 것, 일처리에서부터 웃침리에 이르기까지 실용적이고 간편한 것을 선호하는 것, 그리고 평등성, 보편성, 포용성, 합리성, 기술성, 독립성, 개방성, 등등. 미국이 이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결국 미국의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을 주는 공통선(共通善)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서 량 (의대 63)

그를세션을 하다가 환자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왜 남에게 말을 거는가. 누군가의 의사소통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소통의 밑바닥에는 무슨 이유가 깔려 있는가, 하며 내가 다음 질문을 던지기가 무섭게 제발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누가 짜증을 부린다.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일반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라고 있는 것이 생각이다. 질문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도 생각이나 질문처럼 상인과 소비자의 주고받음이 활발해야 경제유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부(富)를 배급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경제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논리의 비약이 심하지만 정작 미안한 생각을 듣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속내를 남에게 털어 놓고 싶어한다. 때로는 바빠 죽겠는 사람을 불렀고 일반적으로 오래 떠드는 사람을 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타인의 감성을 너그러이 감싸주는 상대에게 마음에 쌓이고 맺혔던 생각과 느낌을 쏟아내면 속이 후련해진다. 그리고 심년 묵은 체증이 풀렸다고 웃으며 말한다.

한 환자가 느닷없이 노래를 부른다. 아, 지금 네가 하는 노래도 우리가 하는 대화의 일부이니까 가사를 분명히 알려 줄 수 있겠느냐 하나까. 그건 자기만이 아는 노래이니까 싫다고 한다.

우리의 대화에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정확한 발음으로 중얼대는 그런 독백(獨白)이 들어있다. 혼잣말은 대화가 아니라고 눈썹을 찡그리며 당신은 대들고 싶겠지. 나는 이렇게 심각하게 말한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 또한 내가 하는 혼잣말이다. 시인(詩人)을 위시로 한 모든 글쟁이

물론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문제’들을 안고 고민할 것이다. 인종 문제, 대테러 문제, 이민 문제, 총기 문제, 인공지능, 사이버범죄, LGBTQ 등등. 하지만 능력주의와 경쟁이 죄악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국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이미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problem solving)보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것(problem seeking)을 더 중요시하고 더 “즐거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문제가 많아서 오히려 행복한 나라란 말인가.

하지만 바로 그 것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풍족하고 영향력 있고 혁신적으로 진전된 나라로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생각도 해 본다. 인류역사상 미국만큼 평화와 번영의 이념을 전파하고 결실을 이루어낼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된

독백에서 출발하여

들은 자신들의 독백을 읽고 공감하는 독자들이 상주하는 거대한 가상의 광장으로 날이면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출두한다.

‘monologue, 독백은 ‘mono, 하나, 단(單)’라는 접두어가 밝하듯이 혼잣말을 뜻한다. 반면에 ‘dialogue, 대화’의 첫 부분 ‘dia-’(across, 가로질러, 건너서, 맞은편에)라는 의미로서 말하는 사람의 머릿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dialogue’는 딱히 둘이서 주고받는 말 외에도 여러 명이 말을 주고받는 그림이기도 하다.

무대 연극이나 영화에서 가끔 쓰이는 방백(旁白)이라는 화백이 있다. 이것은 한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만 다른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경우다. 정신과 내세를 풍기면서 자기 일을 남의 일처럼 쿨하게 말하는 기법.

고백, 독백, 방백 같은 한자어는 다 ‘흰 백(白)’으로 끝난다. 내 어릴 적 한식집 대문에 ‘맹견주’의 바로 밑에 쓰인 ‘주인 백’도 지금 읽고 보니 흰 백자다. 옥편에 ‘白은 많은 뜻이 나와 있는데 그 중 ‘아리다, 말슴드리다, 사리다’는 대목도 있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지. 중국식 독백은 혼자 중얼거리는 어법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 생각이 나 느낌을 굳이 전달하는 행위다. 그렇게 마음을 털고 비워버리면 영혼이 백지처럼 하얗게 깨끗해지는 모양이지.

그날 그를세션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션이 끝나 후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이런 독백을 한 것 같다. 우리가 남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자신의 심리적 체증을 풀거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허전한 자기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남의 마음을 입수하려는 시도가 아닐지. © 서 량 2019.05.06

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문제들만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들이 평화와 번영의 이념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영동한 생각도 있다.

이는 물론 누가 더 좋은 차를 만들고 더 좋은 휴대전화기를 만드느냐의 얘기가 아니다. 덴마크인들이 더 행복하고, 일본인들이 더 오래 살고, 핀란드의 교육이 더 훌륭하고, 룩셈부르크의 개인소득이 더 많을지 모른다. 하지만 세계는 지금도 미국의 ‘발상과 이상’(American ideals)에 의해 감화되고 영감과 자극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본다. The world continues to be inspired by American ideals. 아니면 “세계는 미국의 ‘문제’에 의해 감화되고 있다”고 해야 할런지.

권오을 (상대 56)
밴쿠버 동문회 회장

어떤 것의 득과 해를 가름하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흔히 객관적이고 가시적 지수인 돈으로 측정하려 하는데, 그럼 왜 돈이 좋은 것인가라는 한 차원 높은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여 보면 만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름의 기준으로 하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2400년전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하여 최근의 달라이 라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각자들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고 주장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해, 결혼, 생일 같은 날에 북 명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는 것을 미루어 봐도 행복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다. 또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국민의 생명, 자유와 함께 행복추구를 수호하는 것이 정부의 근본 목적으로 하고, 최근에는 UN에서 각 국의 행복지수를 산정하고 정책목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이 귀하지만, ‘행복이 무엇으로 정해지는가에 대한 답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오복(五福)이라 하여 수, 부, 강녕,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다. 이 행복 요소들이 과거 수십 년간 많이 호전되었음에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별 진전이 없고, 외국과 비교를 하여도 한국의 행복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호전되었는데도 행복지수는 그렇지 않다. 최근 한국의 명망 높은 철학자들도 행복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오복이나 철학자들의 행복요소는 교훈적설교적(didactic)인 단어들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행복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이해하려는 학문이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긍정심리학이다. 심리학의 한 분야인 긍정심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행복의 세 요소를 즐거움 (pleasure), 좋은 대인관계 (relationship)와 ‘의미 있는 행동’(meaningful activities)이라고 주장한다. 즐거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의미 있는 행동’이란 가치 있는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나 노력 그 자신의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많은 선각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가족, 친구 등과의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최근 뉴욕타임즈지에도 임종에 임한 사람들이 만족스런 치부(致意)나 성공보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대인관계가 자신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우리는 좋은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잘 실행 못하고 있다.

인간관계는 동서양 사회문화에 따라 많이

동문회의 득과 해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특징이 되는 공통적인 생활상태, 사고 방식, 가치관을 의미한다. 이런 문화는 긴 세월 동안 주어진 환경, 역사, 종교, 사회제도, 언어 등을 통하여 인류생활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형성되며, 세대를 두고 전달된다.

동서양 문화의 차이를 여러 측면으로 분석, 측정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제일 뚜렷이 나타난다. 캐나다나 서구 문화의 기본은 개인주의(individualism)인데 비하여, 한국이나 동양은 집단주의(groupism)이다. 개인주



의는 사회구성의 핵심체인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개개인의 가치판단이나 권한을 집단의 것 보다 우선으로 본다. 이에 반하여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가치판단과 권한을 우선으로 본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은 단체와 더불어 발전하고, 단체 구성원간의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자기 단체의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구성원들간에 화목하고 같이 발전하려 한다.

집단주의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중국, 일본 등에 지배적인 문화이다. 한국의 집단주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국제경쟁분야에 잘 알려진 한 측정에 의하면, 한국의 집단주의 이념이 82점인데 비하여 캐나다는 20점이었다.

한국 사람이 중시하고 속하는 단체가 많지만, 가족, 동문, 고향 등이 중요한 단체 기반이다. 한국 사회의 동문회는 서양과 많이 다르다. 서양에도 동문회 (alumni association)가 있지만, 그 취지가 대학과 졸업자들

연결시켜 기부 등을 통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문 간의 유대감은 없고, 한국의 동문 간에 느끼는 우정이나 정서는 전혀 없다. 동문 유대를 따지면 캐나다에서는 사회의 비난이나 조롱을 받는다.

한국의 동문회 중요성은 동양에서도 가장 높은 것 같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양반만이 과거시험을 볼 수 있었고, 과거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서당에서 공부를 했다. 서당 학동들은 양반 그룹이라는 의식이 있었고, 필자도 사변 후 서당의 경험을 잠시 하였는데, 놀다랗게 창문이 하나 달린 작은 방에 비좁게 앉아 받는 서당교육은 무척 엄하여, 훈장의 벌도 받고 매도 맞고, 갖가지 심부름도 하면서 학동끼리 가까워지고, 자연히 평생을 두고 서로 도우면서 지내게 되어 ‘동창생’이라는 유대가 생겼다.

이런 전통을 가진 동창회가 이제 서당교육이 없고, 같은 교문을 나왔다고 ‘동문회라 부르면서 한국의 그룹사회에서 중요한 단체로 위치하게 되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대인관계가 둘로 나누어져 크게 차이가 있다. ‘아는 사람’ 또는 ‘같은 단체 회원에게

전을 위해 제공하는 특별한 은전은 많이 희박해졌지만, 동문이라는 친교 감은 이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본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동문간의 우정을 높이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대인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도 동서양이 다르다. 서양에서는 처음 만나도 곧 친구가 되지만 한국문화에서는 동문이나 고향 같이 연교가 있어야 우의가 형성된다. 특히 문화와 종족이 다른 외국에서 사는 많지 않은 동문들 간의 끈끈한 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큰 득이 된다고 본다.

동문회가 주는 해도 있다. 동문 등을 근거로 한 집단사회의 특징이 같은 회원들간에는 서로 신뢰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일반 대인간의 신뢰도는 28%인데 비하여 캐나다는 42%였다. 대인간의 신뢰가 낮으면 여러 가지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유발한다. 사회갈등(conflict)을 높인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2%가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하고, 27개 OECD 연구대상국에서 26번째로 높다. 사회갈등이 높으면 사회발전의 척도로 보는 사회융합(cohesion)이 낮아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융합지수는 222점으로 30개 OECD 연구대상국에서 29번째로 낮다. 대인간의 신뢰가 낮으면 경제거래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이것이 동문 같은 단체들이 야기시키는 사회적 해로서, 사회 전체의 행복지수를 낮추게 된다.

모든 사람이 절약하면 국가 경제에 파탄을 일으켜 모두가 가난하게 된다는 ‘절약의 역설’같이 구성의 모순(fallacy of composition)이 생긴다. 동문회원들끼리 우의를 높여 행복을 높인다 보면 사회 전체의 행복지수가 낮아지면서 결국 회원들의 행복도 감소한다는 결과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을 기준으로 하여 동문회의 득과 해 중 어느 것이 큰지는 가름하기 어렵지만, 이민사회에서 소수 민족으로 사는 우리 교민에게 동문회의 득이 크다고 주장하고 싶다. 다만 동문이나 자기의 단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을 위한 자세가 아닐까?

Adjunct Professor, Beedie School of Business, Simon Fraser University



권오을 동문은 고령임에도 마라톤을 즐긴다. 2016년 보스톤 마라톤 대회 그룹(80+)에서 1등을 하기도 하였다.

지역 동창회 소식 및 동문 동정

서울대 수의대, 미국 수의사회 7년 완전 인증 획득

최근 5년간 교육개선 성과 인정..미국 수의사 진출. 한미 수의사 면허 상호 인정 새 국면



【기사 출처: 데일리벳 서강문 학장】 서울대 학교 수의과 대학이 미국 수의사회 (AVMA) 로부터 교육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아시아에 위치한 수의과 대학이 AVMA 교육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최종 인증 평가를 위한 본실사를 거친 수의대는 미국 현지 시각 4월 15일 미국수협(수협) 교육 위원 회로부터 7년간 기한의 완전 인증(Full Accreditation)을 획득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거론되던 서울대 수의대의 AVMA 인증은 2011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2011년부터 AVMA 인증 신청을 위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서울대 수의대는 2014년 AVMA 교육 위원회로부터 자문 실사

를 받았다. 이후 3년 여간 자문 실사단의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수의학 교육 환경을 개선 한후 2017년말 본실사를 신청했다.

서울대 수의대 관계자는 "당시 자문 실사에서 교육 시설과 임상교육을 비롯해 예산, 조직, 시설, 장학금등 수의대학 전반을 점검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지난 4년여간 수의학 교육 환경을 집중 개선 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수의대는 인증을 추진하면서 관악 캠퍼스에 반려 동물 병원과 연구동 2개를 증축하고 실험 시설을 현대화 하는등 임상 교육 기반을 넓혔다.

이와 함께 평창 캠퍼스에 산업 동물 임상교

육 연구원과 대동물 병원을 만들고 재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장 동물 임상 교육의 취약점도 보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수의사회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수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었다"며 "임상 로테이션 및 외부 실습 확대, Hands-On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 할 수 있는 임상케이스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수의대가 올해 미국 수의사회 인증을 획득하면서 지난 2월에 졸업한 졸업생부터 미국 수의사회 인증 수의과 대학 졸업생으로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 관계자는 "미국 수의사회가 지난해 본실사에서 최근 5년간 수의학 교육의 질을 평가



서울대 수의대 캠퍼스

한 만큼, 그기간동안 교육을 받은 올해 졸업생과 현재 재학생 모두가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수의대 졸업생, 곧바로 미국 수의사 국가시험(NABVE) 응시 가능해져 이들 졸업생은 미국 현지의 인증 수의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수의사 국가시험(NABVE)에 바로 응시 할 수 있다. 기존 도전자들이 ECFVG 나 PAVE 과정을 거쳐 응시 자격을 획득 했던 것에 비해 간소화 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 수의사회 인증을 받은 해외 수의과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아직 지지 부진한 한미 FTA 수의사 면허 상호 인정 협상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미국 수의사회로부터 7년 완전 인증을 받은 서울대 수의대는 매년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7년 기한 말미에 갱신을 위한 추가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미국 수의사회 인증을 받은 수의과 대학은 서울 수의대를 포함해 전 세계에 50개 대학이다. 미국(30)을 제외하면 캐나다(5), 호주(4), 영국(3), 프랑스(1), 아일랜드(1), 멕시코(1), 네덜란드(1), 서인도 제도(2) 등 서구권 중심이며 아시아에서는 한국(1)이 최초이다.

미주동창회 종신이사께 "감사한 마음" 담아

'관악 후원회 종신이사 증서' 우송 중

비를 적립하고 있다.



【기사: 김원영 편집인】 제14대 동창회 집행부는 제13대 집행부로부터 모두 헌내 분의 종신이사님이 후원하신 종신이사비 \$188,791을 인수 받은 2017년 6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새로 스물세 분의 종신이사님의 가입을 받아 총 일흔일곱 분의 종신이사님을 모시고 \$250,100의 종신이사

종신이사는 1 일반 이사(\$3,000 이상), 2 Gold 이사(\$10,000 이상), 3 Platinum 이사(\$50,000), 4 Diamond 이사(\$100,000)로 구분한다. 현재 두 분의 Gold 이사님과 일흔 다섯 분의 일반 이사님을 모시고 있다. (P29 종신이사 내역 참조)

전체 목표액 3백만 불이 모이면 이자 등으로 동창회 운영 경비의 반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뜻을 알리고자 미주 동창회는 그동안 후원하신 이사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관악 후원회 종신이사 증서(사진)'를 만들어 증정하고 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 news@snuuaa.org / www.snuuaa.org



서울대 수의대 AVMA 인증 후기

조정현 (수의대 58)

미국에서 2008년 7월 1일부로 뉴저지 지방 보건국장직을 34년 근속 한 후 은퇴하고 서울로 가서 모교를 방문했는데, 당시 서울대 수의대 권오경 학장님이 AVMA에 제출할 리포트 재편집 부탁을 하며 서류를 건네 주셨다.

뉴저지 집으로 돌아온 후, 8월 후반부터 시작을 하여 12월 중순에 초고를 끝내고 이를 권오경 전 학장에게 제출하고 곧 그 다음해에 바로 Schaumburg, Illinois에 있는 AVMA(미국 수의사회)로 직접 찾아가 당시 AVMA Continuing Education Director였던 Dr David Grandstrom을 만나서 3시간 동안을 상의하였다. Dr Grandstrom의 제의대로 곧 Annual Self-Study Report 2011와 Self-Report 2014를 만들었다. 당시 서울대 수의대는 생명공학동을 건축하고 학제는 본과 4년 중 4

학년 1년간을 임상 실습으로 변경하면서 평창에 대동물 병원과 연구동이 지어졌다. 곧 미국 수의사회의 Consultation Site Visit Team을 초청하여 6/1~6/5/2014 사이 시설 검사를 받았다. 그때 학장이시던 류판동 학장이 2년을 연장 근무하시면서 계속해서 일을 추진하셨고, 후임으로 김재용 학장님이 교수 위원회와 함께 인증 업무를 맡아서 마무리하셨다.

2017년에 Veterinary Medical Teaching Hospital이 증축되어 개원 됨에 따라 그 해 12월에 AVMA의 Comprehensive Site Visit Team의 방문을 요청하여 다음해인 2018년 12월 9~14일에 방문이 이루어져서 2019년 4월 15일의 Site Visit 동안 가장 최상급인 7년 인준을 당시 학장이시던 우희중 학장님에게 전달, 현 학장님이신 서강문 학장님의 앞으로 인계되었다.

남가주총동창회 봄철 골프대회

>> P 1로부터



메달리스트: 오영문 (수의대 64)



메달리스트: 제영혜 (생과 71)



근접상: 조용국 (사대 94)



챔피언: 박금옥 (사대 63)



남가주총동창회 임원진



81학번 동문 테이블에서

"자주 만나니 행사 준비도 즐겁네요"

남가주 총동창회 5월 임원회의, 가족의밤, 노동절 캠핑 등 논의



【기사: 이종호, 남가주 총동창회 사업국장】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한귀희) 5월 정기 임원회의가 지난 2일 LA한인타운 한식당 '용수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한귀희 회장, 최용준 총무국장 등 18명의 참석 임원들은 지난 4월 골프대회를 결산하고 다가올 주요 행사의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논의된 남가주 총동창회 후원 또는 주관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동문 작가 미술 작품전 및 옥션 행사 : 미대 동창회 주관으로 5~11월 작가의 집에서 개최된다. 행사 수익금의 절반은 총동창회에 기부된다.
2. 총동창회 전체 임원 모임 : 각 단과대별 동문회장과 올해 임원들이 함께 모여 총동창회 활동 상황과 재무 상황 등을 점검하며 전반적인 동창회 활동을 복돋우기 위한 자리다. 5월 16일 오후7시 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3. 할리우드보물 가족의 밤 : 생명과학대(구 가정대)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서울대 남가주 동창회의 전통적인 문화행사다. 올해는 7월 27일 (토)로 날짜가 정해졌으며 관람 프로그램은 'In To The Woods with Fireworks' 당 '용수산'에서 열렸다. 특별히 올해는 고급 일식 도시락까지 준비하기도 하고 캠핑장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특별히 올해는 고급 일식 도시락까지 준비하기도 하고 캠핑장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특별히 올해는 고급 일식 도시락까지 준비하기도 하고 캠핑장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주 동창회의 전통적인 문화행사다. 올해는 7월 27일 (토)로 날짜가 정해졌으며 관람 프로그램은 'In To The Woods with Fireworks' 당 '용수산'에서 열렸다. 특별히 올해는 고급 일식 도시락까지 준비하기도 하고 캠핑장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특별히 올해는 고급 일식 도시락까지 준비하기도 하고 캠핑장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4. 노동절 연휴가족 캠핑 행사 : 8월 31일(토) ~ 9월 2일(월) 2박3일간 킹스캐년 국립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총동창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행사로 한귀희 회장 등 임원진이 지난 해부터 장소 확보 및 예약에 힘을 쏟았고 이미 두 차례 답사로 다녀왔다. 캠핑 행사로 확정된 장소가 평소에도 예약이 어려운 유명 국립공원 안이라 벌써부터 기대 섞인 문이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세한 공지는 5월 말 시작할 예정이며 선착순 예약을 받는다. 한편 이날 모임후 일부 임원들은 한인타운 내 낭만 카페 '헤이리로' 자리를 옮겨 차와 팔방수 등을 나누며 밤 늦도록 얘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남가주총동창회, 임원진 킹스 캐년 캠핑 행사 시설 답사 숙박시설, 관광 코스, 야외 바베큐 시설 점검



시설 점검에 참여한 임원들



【기사: 남가주총동창회】 남가주 총동창회는 지난 4월 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있을 Labor Day Weekend 가족 캠핑 행사를 위한 답사를 다녀왔다. 한귀희(미대 68) 회장과 최용준(수의대 81) 총무국장, 신호근(문리대 81) 행사위원장을 중심으로 김경애(미대 83), 손영아(음대 85), 김용진(수의과대 91), 이완구(수의과대 92) 등 임원 7명은 캠핑 행사를 가질 킹스 캐년의 숙박 시설과 관광 코스, 야외 바베큐 시설 등을 둘러보고 왔다.

지난 2005년 김영(수의과대 63) 동문회 상임이사가 시작한 가족 캠핑 행사는 해마다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내려오는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동문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받아오고 있고, 2박 3일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 여행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문 친목 행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킹스 캐년의 볼거리는 단연 산과 나무, 호수, 그리고 동굴 등 자연이 풍부하다. 미국 최고봉인 해발 14,494 피트의 Mount Whitney와 북미 최고 수준의 깊이를 자랑하는 Kings River Canyon이 이곳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인 The General Sherman을 만날 수 있다. 약 2,200살로 추정되는 이 나무의 키는 약 280피트이다. 가지 하나만 해도 보통 나무의 한 그루보다 클 정도의 장군을 만나면 목이 꺾이도록 하늘 높이 솟은 늠름한 자태에 감탄을 금하기 어렵다. Congress Trail에서는 지금은 화재로 순위에 들지 못하지만 1990년대까지 세계에서 두번째로 컸던 The Washington tree 나무라는 별명을 가진 General Grant Tree와 Fallen Monarch라고 불리는 나무도 볼 수 있다. 이 나무는 속이 텅 빈 채 세쿼이아 숲 가운데 길게 드러누워 있는데, 한 때 미국 기병대의 말을 위한 마굿간으로 활용된 적이 있을 정도의 크기이다. Crystal Cave를 비롯해 세쿼이아와 킹스 캐년 국립 공원에 200개 이상의 대리석 동굴이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 최장 길이의 동굴도 이곳에 있다.

첫날 저녁은 현 회장 소속 단과대학에서, 다음날 저녁은 차기 회장 소속 단과대학에서 준비하는 바베큐 파티는 모든 동문 가족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다. 오고 가는 첫날과 마지막 날의 일정은 대부분 자유이지만 둘째 날은 동문회에서 준비한 몇 가지 활동 중 선택하여 하이킹, 관광, 산악자전거 등을 즐기기도 하고 캠핑장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동문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이다 보니 늘 대규모 모임이 되어서 장소 설정은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난제가 되어왔다. 많은 식구가, 그것도 황금 연휴에 한 장소에 모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또한 선호하는 숙박 시설을 통일 시키기도 힘들다. 그렇다고 숙소 위치가 산발적이 되면 바베큐 파티 등 동문들이 다 같이 모이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었다.

그동안 가고 싶었지만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가지 못하던 곳 중 하나가 킹스 캐년이었다. 큰 국립 공원이고 볼거리도 많은 산이며 또한 다양한 숙박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도 시도하거나 예약할 수 없던 곳이었다. 세계적인 유명 공원은 만큼 단체 예약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불가능한 일을 한귀희 회장이 해냈다.

한회장은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John Muir

를 마쳤고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워싱턴 DC 동창회, 대형 버스 대여해 Longwood Gardens로 일일 여행



Longwood Gardens 입구에서 단체 사진 촬영

【기사 제공: 문항식 (농대 81), 이주희 (음대 89)】
 디더어 그날이 되었다. 거의 7, 8개월을 준비한 프로젝트인 셈이다. 2018년 여름에 서울대학교 동문회 워싱턴 지부 회장직을 맡고 임원진을 구성하여 정평희 (토목공학 71) 회장님이 처음으로 소집한 임원진 회의에서 계획을 발표하신 프로젝트. 2019년 4월 20일, 토요일에 서울대학교 워싱턴 동문회는 동문과 가족 포함 52명을 큰 전세버스 한 대에 가득 채우고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Longwood Gardens로 일일 여행을 다녀왔다. 대형 관광 버스를 전세 내어 타도시로 단체 여행을 갔다오는 행사는 워싱턴 지부 동문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준비 기간 몇 개월 동안 몇몇 임원들의 수고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좋은 날씨 고르고, eVite로 동문들에게 초대 글 만들어서 보내고, 날씨가 다가옴에 따라 몇분이나 신청하셨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보고 하고, 신청 인원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예비 차량도 신청해 두고, 입장권 단체 예약, 점심 도시락 음식구 간식 준비는 물론, 운전이 어려운 동문을 집결 장소까지 모시고 오는 차량 제공까지, 작은 일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회장님과 임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빛을 보는 행사였다.

버지니아 Annandale 과 메릴랜드 Beltsville 두 곳에서 각각 8시 반과 9시 반에 모여서 간다고 공지를 했는데 한 분도 늦게 오시는 분 없이 미리 와서 기다리실 정도로 시간을 잘 지키셔서 동문 단체 '봄놀이'에 거는 기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 올 확률이 50% 안팎으로 행사 취소를 고려해야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당일 아침에는 날씨가 더 바랄 수 없을 만큼 좋았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너무 쨍쨍한 햇살이 내려쬐는 날은 아니어서 야외에서 걷기에 안성맞춤인 날이었다. 길이 좀 막혀서였는지 운행 시간이 예상보다 다소 오래 걸렸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탑승자 전원에게 김밥과 딸, 꿀, energy bar가 든 점심 식사와 물을 나눠드리고 자리를 잡고 앉은지 얼마 후부터, 뛰어난 MC 솜씨로 소문난 사회자 이관후 동문(산업공학 87)이 마이크를 잡고 게임을 시작했다. 버스 탔으니 잠을 좀 청해볼까 했다가 경쟁에서라 말할 수 없는 우리 서울대 동문을,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뜬다. 사회자와

가위바위보, 끝말 잇기, 발음 어려운 단어로 구성된 문장 빨리 읽기 (Tongue Twisters), 삼행시 짓기, 두루마기 휴지로 팔간자 인간 사슬 만들기 게임 등을 하는데 중간중간 재미있는 말쑤며 부드러운 진행 솜씨가 전문 사회자 못지 않아, 앞으로 동문회 행사 때마다 이관후 동문 사회자로 참 많이 불리겠다. 이관후 동문(공대 67)은 그 어려운 '촉촉한 초코칩과 안 촉촉한 초코칩'의 긴 문장을 방송국 아나운서가 울고 갈 정도로 글자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고 부드럽게 읽어 모두를 놀라게 했고, 삼행시 짓기에서는 즉석에서 '서울대야! 관악산! 이 운으로 주어졌는데 김희자 동문(간호 74졸)이 수준 높은 멋진 삼행시를 지어 모두의 큰 박수를 받았다. 정계준 동문(사회 55)은 차예방 차원에서 스페인어를 배운다고 하시면서 "베사메우초"를 멋들어지게 원어로 불러서 듣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셨다. 선후배님들이 버스의 작은 공간 안에서 함께 어울려 게임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다보니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다른 건 몰라도 실내 정원 Conservatory는 놓치면 안될 듯해서 서둘러 서쪽 끝으로 걸어 가니 역시 Conservatory에 많은 동문들이 구경을 하고 계셨다. 지도에 있는 안내를 보면 실내정원은 그 규모가 5,700평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구성구색 다른 종류의 형형색색의 꽃들이 너무 예뻐서 거기에서만 하루 중 일 보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다. 마침 보라색과 분홍색 수국이 어울려 천장에 매달려 있는 방 한 면에서 현악 4중주의 연주가 흘러나와 총천연색 아름다운 꽃 속에 두어 시간의 걸음으로 살짝 지친 발걸음을 쉬고 바이올린과 첼로의 선율이 귀를 맑게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세 시간 남짓한 시간이 빠르게 흘러 버스는 어느새 목적지 도착. 이주희 동문 (동문회 부총무 겸 서기, 음대 89)이 미리 예약한 단체 할인 입장권을 재빠르게 받아와서 한글로 된 정원 지도와 함께 나눠준다. 노란색과 보라색의 튜립이 예쁘게 핀 입구에서 단체 사진로 기념 사진을 찍고 3시 15분까지 다시 버스에서 만나기로 하고 각자 설레는 기대감으로 입장했다. 친절한 만물박사 박문수 동문(동문회 조직/IT, 전자공학 82)의 안내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의 Kennett Square라는 도시에 위치한 Longwood Gardens는 실외 정원 20개, 실내 정원 20개, 숲, 목초지 등에서 무려 11,0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분수대가 가장 많은 식물원이라고 한다. 여기저기에서 분수가 뿜어나와 정원의 맛을 더했지만 정원의 동쪽 끝부분에 있는 Italian Water Garden은 마치 유럽의 어느 궁전에서 있을 법한 고전적인 디자인의 수심개 분수에서 물을 뿜어 시원함을 선사한다.

정원 입구에서 거기로 가려면 Flower Garden Walk를 지나게 되는데 마침 철이라 색깔가지의 튜립이 만개하여 지나는 사람마다 예쁜 사진을 찍으려고 부지런히 셔터를 눌러댄다. 나도 전화기로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꽃 색깔의 채도가 너무 맑아 아무렇게나 찍어도 아름답다.



다들 건물라도 실내 정원 Conservatory는 놓치면 안될 듯해서 서둘러 서쪽 끝으로 걸어 가니 역시 Conservatory에 많은 동문들이 구경을 하고 계셨다. 지도에 있는 안내를 보면 실내정원은 그 규모가 5,700평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구성구색 다른 종류의 형형색색의 꽃들이 너무 예뻐서 거기에서만 하루 중 일 보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다. 마침 보라색과 분홍색 수국이 어울려 천장에 매달려 있는 방 한 면에서 현악 4중주의 연주가 흘러나와 총천연색 아름다운 꽃 속에 두어 시간의 걸음으로 살짝 지친 발걸음을 쉬고 바이올린과 첼로의 선율이 귀를 맑게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난꽃을 한참 감상하다가 2시 15분에 시작한다는 분수쇼를 보



러 Open Air Theatre로 갔는데 10분 정도 남았지만 벌써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익숙할만한 'The Stars and Stripes Forever'에 맞춰서 분수들이 춤을 추는데 저녁 시간에 여러가지 색깔의 불빛과 함께 했으면 더 볼만한 쇼가 되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예쁜 꽃들과 잘 정돈된 여러 정원들을 둘러보다 보니 어느새 돌아갈 시간이다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목을 여러 가지학적 모양으로 다듬어 놓은 Topiary Garden을 지나 Main Fountain Garden을 둘러보고 기념품점에 들러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10분 정도 먼저 버스 주차장으로 돌아왔는데 회장님과 강윤선 동문(동문회 회계, 제어계측 81)은 벤치에 앉아서 동문회 일출 하고 있다. 이런 임원들 덕분에 우리 동문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새삼 고맙고 자랑스럽다.



예쁜 구경거리가 많아서인지 대부분 거의 3시 15분 가까이 되어서야 차로 돌아오셨다. 돌아가는 길에는 세 시간 가까운 걸기 운동 덕분에 곤히 잘 잤다. 버스는 예정 시간에 거의 맞추어 아침에 집결한 장소였던 Beltsville에 있는 한식당 서울리아 도착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미리 주문해 놓은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버스에서 하지 못했던, 각자 소개를 하는 시간을 뒤늦게 가졌다. 1963년도에 치과대학에 입학하시고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권경도 (치대 63) 선배님의 소개에 바로 이어 소개한 정세근 동문(동문회 임원, 자연대 82)은 자신은 선배님 대학 입학하시던 1963년도에 태어났다고 해서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행사에는 팔십이 넘으신 대선배님부터 사십대 막바지의 후배들까지 두루 참여하여, 나이를 뛰어 넘어 서울대학교 동문이라는 인연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었다. 연세 드신 선배님들도 임원진들이 꼼꼼히 잘 챙겨줘서 즐거운 하루가 되었다면서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또 함께 소풍을 가자고 말씀을 해 주셔서 흐뭇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네, 선배님 다음 소풍 때 다시 뵙겠습니다!



남자를 통해 아들에게만 전해지는 유전자



박영철 (농대 64)

한국인의 기원과 형성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고구려, 신라, 백제)시대 전 기록은 거의 없다. 고조선이 언제 어디에 있었으며 한국인이 언제 한반도로 이동하였는지 믿을 만한 역사적 기록이 거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도 삼국 시대 전의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최근 과학 특별히 유전과학, 고고학, 지질학 등의 발전으로 한국인이 언제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거의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DNA 증거에 의하면 해안 루트로 동남 아시아에 도착한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하여 한반도에 첫번째는 약 3만년 전, 두번째는 약 1만 5천년 전에 한반도에 도착한다. 이들의 유전자가 한국인의 몸 속에 약 30%~40% 남아있다. 중앙 아시아와 시베리아를 거쳐 내려와서 한반도에 세번째로 약 1만년 전에 들어와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합쳐져서 한국인이 형성된다. 이 북쪽에서 내려온 이들의 유전자가 한국인 몸속에 약 60%~70% 남아 있다.

세계 최초로 쌀과 콩을 재배하여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한 세계 최고 지능을 가진 민족이었고 변하지 않는 지능 유전자로 인하여 지금도 세계 최고의 지능을 가진 민족으로 남아 있다.

고대 한국인들은 약 5,000년 전에 고조선 문명(Ancient Korean Civilization)을 형성하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5,500년 전)과 이집트 문명(5,100년 전)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형성된 고대 문명이었다.

과학적 이브와 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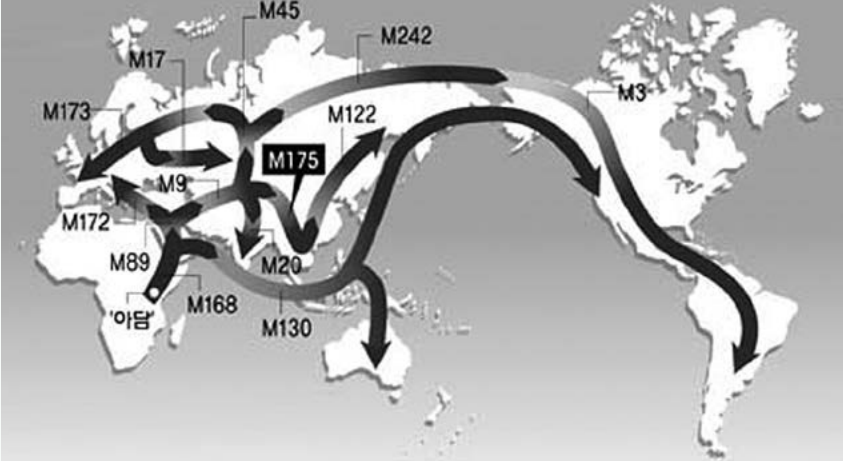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어떤 여성이 약 9만 9천~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나타났다. 여러 과학저널에 보고 되었다. 20만년 전 유골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 그 여성이 약 5만~6만 5,000년 전에 아프리카를 탈출하였다. 그리고 그후손들이 세계 각지역으로 이주하여 모든 현재 살아있는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다(Stringer et al, Science 239:1263,1988). 미토콘드리아(세포 안에 존재하면서 호흡을 수행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소기관) DNA를 분석하여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성서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 '이브'를 생각하며 사람들은 이 여인을 '미토콘드리아 이브' 혹은 '과학적 이브'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어머니로부터 딸에게만 전해지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수정을 일으켜 다음 세대의 아기가 만들어질 때 정자 꼬리 부분에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떨어져 나가고, 핵이 있는 머리부분만 난자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대략적으로 남방 해안 루트를 거쳐 먼저 처음과 두번째로 정착한 남방계 사람들의 유전자를 30~40% 정도 가지고 있고,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대륙의 바이칼 호수 부근에서 북방 루트를 거쳐 나중에 세번째로 정착한 북방계 사람들의 유전자를 60~70% 정도 가지고 있다(이홍규, 한국인의 기원, 2010).

로 구성된 Y 염색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Y 염색체 연구로 지금 지구에 살아 있는 모든 남성들의 조상을 추정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남자를 'Y염색체 아담' 혹은 '과학적 아담'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과학적 아담이 약 6만 9천~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았다고 여러 문헌에 보고 되었다.

어떤 종족이 한국에 모여 오래 살아가면 그 사람들의 유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변이도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이주해 가는 사람들의 유전적 변이는 원

Y 염색체로 본 인류의 이동경로



'M175' 등은 유전자형의 이름 (자료: <인류의 여행>, 스페인 웰스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

거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유전적 변이보다 다양성이 줄어든다. 전체 주민 중 일부만 움직이기 때문에 일부 유전형, 그것도 후손 유전형을 가진 사람 만이 이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제 시대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오사카, 중국 연변 지역으로 많이 이주했다. 오사카에는 경상도 사람들과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갔고, 연변에는 이북 사람들, 특히 함경도 사람들이 옮겨갔다. 그래서 오사카와 연변의 한인 동료들이 가진 유전자의 다양성은 그 기원지인 한국 전체 인구의 유전적 다양성에 비해 훨씬 덜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사람들에서 유전적 변이도가 가장 다양하다는 것은, 아프리카가 인류 기원의 중심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은 대략적으로 남방 해안 루트를 거쳐 먼저 처음과 두번째로 정착한 남방계 사람들의 유전자를 30~40% 정도 가지고 있고,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대륙의 바이칼 호수 부근에서 북방 루트를 거쳐 나중에 세번째로 정착한 북방계 사람들의 유전자를 60~70% 정도 가지고 있다(이홍규, 한국인의 기원, 2010).

해안을 따라 남쪽에서 한국 땅에 처음 온 사람들

아프리카를 탈출한 현생 인류는 바닷가에서 조개와 물고기를 잡아먹던 사람들이었고, 지금의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홍해가 있는데, 아프리카 해변에 살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에 움직였다. 약 6만년 전 지구 환경은 빙하기여서 지금보다 해수면이 훨씬 낮았고 대륙의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커서 걸어서 이동하기가 훨씬 쉬웠다. 홍해의 해수면이 약 250미터나 내려가 있고, 섬이 징검다리라 되도록 노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바다 건너 신전지가 뻗어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 지역에는 12만 5천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조개무지(매추)가 있어서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조개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DNA, Y 염색체 유전형 분포 패턴과 그 형성 시기 등 여러 자료들을 고려할 때 두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선조가 에티오피아 약 4만 5천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난 L3 유전형 후손들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중동에 정착하고 전세계로 퍼진다. 약 4만년 전 빙하기가 해빙기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잠시 동안 따뜻한 기후로 변하여서 L3 후손들이 중앙 아시아로 움직인다. 이 후손들은 오래 동안 산과 바다로 분리되어 있었고 아프리카보다 출고 태양열이 약한 환경 속에서 오래 살아가게 됨으로 유전형은 갈으나 피부 색이 연한 아시아인이 형성된다. 약 3만 5천년 전 중앙아시아 후손 일부가 유럽으로 이동한다.

약 2만년 전 중앙아시아에 살던 후손들이 북쪽으로 이동하여 시베리아와 북극 주변으로 이동한다.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 부근으로 이동한 후손들은 그곳에서 아주 추운 기후에 적응하면서 원-몽골리아인이 형성된다. 바이칼 호수 부근의 말타 마을에는 2만 3,000년 전의 사람 주거지 유적이 남아 있다. 바이칼호는 넓은 세계 7번째지만, 담수량을 기준으로 볼 때는 세계 최대의 호수이다. 지금도 바이칼호 주변에서는 매년 3천만 이상 사진이 일어난다. 특히 지금도 수심 420m에서 뜨거운 물이 솟는 구멍이 있고 호수 주변에는 온천이 많다. 이곳은 소나무, 자작나무, 전나무 등 떨감이 많아 빙하기 때 인류가 추위를 견디며 살아남기에 적합했다. 빙하기에 이들은 강풍과 추위에 적응하면서 체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부지고 뚱뚱한 체형을 가지게 되었다. 찬바람에 대처하려 눈은 작고 가는 실눈, 추위로부터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에 지방이 두툼한 눈으로 변했다.

부근으로 확장하여 L3 유전형 후손 일부가 6만년 전에 아프리카를 나온다. 그 일부가 해안을 따라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인도 남쪽 해안을 지나고 동남아시아 남쪽, 동북 아시아 동쪽을 거쳐 약 3만년 전에 한국 땅에 처음 도착한다. 이들은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형 큰그룹 M에 속한 C, D, E, G, M, G 형을 가지고 있다.

약 4만 5천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난 선조가 위와 같은 해안 루트로 이동하여 약 1만 5천년 전에 한국 땅으로 두번째로 이동해 온다. 이들은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형 큰그룹 R에 속한 B와 F형 계열 사람들이다.

4만 5천년부터 1만 5천년 사이의 한반도는 유아시아 대륙에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1만 8,000년 전 홍해의 깊이는 100m 미만인 대 바다물 높이는 130m 정도 낮아서 황해바다는 없었다. 이 선조들은 오래동안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여 따뜻한 기후에 적응된 사람들이므로 북위 40도 이하에서 밀집하여 동굴에서 살았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시베리아를 통해 들어온 세번째 사람들

약 4만 5천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난 L3 유전형 후손들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중동에 정착하고 전세계로 퍼진다. 약 4만년 전 빙하기가 해빙기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잠시 동안 따뜻한 기후로 변하여서 L3 후손들이 중앙 아시아로 움직인다. 이 후손들은 오래 동안 산과 바다로 분리되어 있었고 아프리카보다 출고 태양열이 약한 환경 속에서 오래 살아가게 됨으로 유전형은 갈으나 피부 색이 연한 아시아인이 형성된다. 약 3만 5천년 전 중앙아시아 후손 일부가 유럽으로 이동한다.

약 2만년 전 중앙아시아에 살던 후손들이 북쪽으로 이동하여 시베리아와 북극 주변으로 이동한다.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 부근으로 이동한 후손들은 그곳에서 아주 추운 기후에 적응하면서 원-몽골리아인이 형성된다. 바이칼 호수 부근의 말타 마을에는 2만 3,000년 전의 사람 주거지 유적이 남아 있다. 바이칼호는 넓은 세계 7번째지만, 담수량을 기준으로 볼 때는 세계 최대의 호수이다. 지금도 바이칼호 주변에서는 매년 3천만 이상 사진이 일어난다. 특히 지금도 수심 420m에서 뜨거운 물이 솟는 구멍이 있고 호수 주변에는 온천이 많다. 이곳은 소나무, 자작나무, 전나무 등 떨감이 많아 빙하기 때 인류가 추위를 견디며 살아남기에 적합했다. 빙하기에 이들은 강풍과 추위에 적응하면서 체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부지고 뚱뚱한 체형을 가지게 되었다. 찬바람에 대처하려 눈은 작고 가는 실눈, 추위로부터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에 지방이 두툼한 눈으로 변했다.

약 1만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바이칼 호수 부근에 있던 원-몽골리아인들은 남하하여 앞서 도착해 살고 있던 남방계 사람들과 섞인다.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로부터 아들에게만 전해지는 O형의 Y염색체 유전형을 가지고 있었고, A, N9, X 등의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형을 가진 여성들을 동반하였다. 요하 부근으로 남하한 원-몽골리아인들은 이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던 남방계 사람들과 섞였다. 이 세번째 들어온 사람들의 유전형이 한국인의 60~70%를 차지하고 있고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형 큰그룹 R에 속한 A, N9 형을 가지고 있다.

이 요하에서 약 1만년 전부터 시작하여 3천 5백년 전까지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기원전 30세기 무렵 한반도와 요동지역에서 고조선 문명이 형성되며 요하와 한반도에서 고조선이 건설되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5,500년 전)과 이집트 문명(5,100년 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형성된 고대 문명이었다(신용하,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 연구, 2017). 고조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연결된다.

지적 능력이 세계 최고인 한국인의 형성과 동북아 사람들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3만년 전부터 환경 조건을 보면 한반도가 황해바다가 없어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연결되어 걸어서 올 수 있는 최종 정착지가 되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여 태양이 뜨는 동쪽으로 움직여 왔다. 동쪽에는 동해바다가 막고 있고 북위 40도선 이북은 너무 추워서 가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한반도가 세계인들의 집합처가 되고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Fort Yargo State Park 내 자유회 장소에서 단체 기념 촬영

조지아 동창회

Fort Yargo State Park에서 유쾌한 봄야유회

동문과 더불어 자연에 취하고, 건강도 살피고

【기사: 최화진 (음대 85)】

내가 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서쪽에 위치한 애쉬벌에서 3시간 남짓 남쪽으로 운전해 내려가면 조지아 주가 나온다. 2000년 남편과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이사를 온 지도 벌써 햇수로 19년이 되었다.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면 가끔 가족 넷이서 주말을 이용해서 애틀랜타를 다녀오곤 했다. 2000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한인 인구와 업소들의 성장은 가히 놀랄 만하다. 지금은 한인 인구가 십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1989년 갓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 유학을 갔을 때 당시 뉴욕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십만명이 넘었다고 해서 놀랐던 때가 생각난다.

남편의 암 전문의 과정과 나의 음악 박사 학위가 거의 같은 시기에 끝날 즈음 남편이 이곳 병원에 초대받아 미국 남쪽 지역에서의 생활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잠시'라는 마음으로 -적어도 나에게- 이사를 와서 생활하게 된 것이 거의 20년이 되어 간다. 두 딸이 모두 이곳에서 자란 후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또 대학원으로 떠났을 때 비로소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올을 느꼈다.

사실 우리 부부가 사는 이곳은 한국의 강원도처럼 산과 자연으로 뒤덮인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많은 일을 맡게 되고 활동하면서 항상 바쁘게 지내는 남편과 나



는 한 달에 한 두 번 애틀랜타에 다녀온다. 시부모님께서도 이사 오셔서 정착해 생활하시고 또 큰 딸이 법대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조지아주는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곳이 되었다. 남편과 이제 점차 우리의 거주지를 조지아 주로 확장해 나가자고 계획을 세우던 차에 먼저 연락드린 곳이 조지아주 서울대 동문회였다. 지난 가을 소풍에 참석하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뵙게 되었다.

이번 봄 야유회도 감사하게도 연락을 해 주셔서 남편과 같이 참석했다. 따뜻하게 맞

아주지며 소개해 주시고 다시 좋은 시간을 가진 날이다.

봄 야유회

5월 5일 오후 1시~5시

애틀랜타에서 북동쪽으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Fort Yargo State Park 내 가장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 잔치상처럼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 놓으셨다. 오심명 정도 (동문/세우자) 참석하셔서 서로 만담을 나누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중구 선배님의 진행하에 야유회가 시작되었고 식사가 끝난 후 시카고에서 오신 셸리 정 동문 변호사의 재산 보호/상속 계획에 대한 유익한 세미나가 있었다. 잇달아 홍성구 이경훈 동문의 인도로 게임과 스트레칭 시간을 가졌으며 많은 분께서 2마일 하이킹을 다녀오셔서 자연을 만끽하시고 건강을 도모하셨다.

조지아에 뿌리를 내리고 지내시는 동문 한분 한분들은 각기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다양하지만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에서 두 문화를 접목해서 모두 긍정적 생각으로 열심히 생활하시고, 그래서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시고 건강해 보이시는 공통점이 있었다.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오후에 동문회 '사랑 모임'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나눔의 시간도 갖고 있다.



이번 봄 야유회도 감사하게도 연락을 해 주셔서 남편과 같이 참석했다. 따뜻하게 맞

요약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은 약 20만년 전에 아프리카에 나타났으며 해안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하여 첫번째는 약 3만년 전, 두번째는 약 1만 5,000년 전에 한반도에 도착한다. 그때는 빙하기였고 한반도가 유럽 및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었고 주로 동굴에서 살았다.

세번째로 이동해 온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약 1만년 전에 요하 지역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며, 약 3만년 전, 1만 5,000년 전에 도착한 사람들의 후손들과 결합하여 한국인이 형성되며 한반도 및 요하 지역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세계 최초로 쌀 (1만 2,500년 전)과 콩(8천년 전) 재배에 성공하여 세계로 전파하였으며 5,000년 전에 이 지역에서 고조선 문화를 형성하였던 세계 최고의 지능을 가진 민족이었다. 지금도 변하지 않고 한국인의 몸 속에 남아 있는 우수한 유전자는 한국인의 IQ가 세계 1위가 되게 하고, 세계 최고 지능을 가진 한국인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었다. 유전학 박사

특히 만주족과 중국 동북 3성인 라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에 살고 있는 조산족은 중국 한족보다는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더 가까웠다. 과거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활동했던 고구려인의 유전적 특성은 중국 한족 집단보다 한국인 집단에 더 가깝다 (김욱, 과학향기, 2006).



동문 문단



이희만 (간호 70)

무한 사랑 (14)

아침마다 찾아드는
아생 고양이 두 마리에게
마음 빼앗겨 사진 찍어
셀폰 페이스로 아직 저장 중인데

이른 봄 부엌 창틀에 앉아
보랏빛 꿈 송이송이 피워내는
아프리칸 바이올렛
아침 출근 때마다 발길 머물게 한다

삼월부터 한 송이 두 송이 피어
어제는 열여덟 송이로 피어나더니
오늘은 진보라색 가운데 노란 심 박은
꽃 스무송이로 활짝 피어나다
양증맞은 작은 키 곧게 세우고
닥지닥지 맞붙은 보랏빛 꽃송이들
저희들끼리 만들어 내는
황홀한 꽃 세상 보인다

행여 틈 보일라,
서로서로 울타리 되어
눈물겹게 한 세상 살아내는 일

먼 땅 끝에서 왔다고
너, 아프리칸 바이올렛



<시인 약력>

시대문학 문단 대표 (1990)
시집 <섬과 섬으로 만나>, <물, 은유법>의 편저 다수
<뉴욕 포에트리>, <한영 시집 편저
한국 여성 문학회 회원
UPLI & CCC MEMBER

의 것이라며 나무는 보랏빛 인내를 꽃으로 속삭인다.

보랏빛 꽃이 나무에서 떨어지자 꽃은 부드러운 살을 그대로 드러낸 채 고운 나비처럼 누웠다. 나무에 매달려 한 생(生), 땅에 누워 시들지 않은 채 다음 생(生)을 사는 자카란다 꽃. 꽃이 지면 나무는 딱딱한 갈색 지갑 같은 씨 주머니에 까만 씨를 만든다. 부드럽고 파르르한 꽃의 삶이 바람같이 사라지자 나무는 자신을 농축시켜 까만 씨를 같은 검은 씨에 자기를 기록한다. 나무의 DNA 같은 본성과 꽃의 빛깔, 향취 등을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딱딱한 씨에 보관해 굳은 주머니 속에 담는다. 어찌보면 아름답고 화려한 보랏빛 꽃은 보석 같은 씨를 만들려고 그리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려고 어머니가 힘든 세월 속에 온 힘을 다해 삶을 지켰듯, 늙고 초라하게 굳어진 어머니의 뼈 같은 자카란다의 씨 주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채 미래의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오월의 어머니날에 엄마를 닮은 자카란다를 보며 살아있음이, 생명의 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활짝 웃는 자카란다의 보랏빛 꽃 자카란다가 말없이 전해준다.

오월의 어머니날에 엄마를 닮은 자카란다를 보며 살아있음이, 생명의 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활짝 웃는 자카란다의 보랏빛 꽃 자카란다가 말없이 전해준다.

현, 미국 LA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후원 회장
미주 중앙일보 '이 아침에' 칼럼 집필
이화여대 동창회보 편집장 역임
저서: <한 생각 물결되어 출렁일 때>, <사각지대의 영무세>, <랜드 인생>

수상
경희 해외 동포 문학상
한국 수필 해외문학상미주 편 문학상
국제 편 한국 본부 해외 작가상

의대 65학번 김성환 동문의 부인

자카란다가 매년 봄이면 새로운 보랏빛



김영애

'자카란다'

자카란다 나무에 보랏빛 꽃이 활짝 피었다. 5월이면 아련히 살아나는 어린 시절처럼, 매년 이맘때면 나무는 화려한 보랏빛으로 온 세상을 색칠한다. 화사한 보랏빛 나무는 황홀한 햇살 아래 신비한 붓꿈을 꾸는 듯하다. 자카란다 꽃이 어머니 날 즈음 고운 얼굴을 내보이기에 어쩌면 상애는 보랏빛일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나뭇가지가 아래를 향해 뻗은 것을 보면 자식사랑이 내리 사랑이란 것을 나무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나 보다.

자카란다의 밤색 줄기를 보자 여러 겹의 주름만큼이나 굴곡진 삶을 사셨던 어머니가 생각한다. 열여덟 어린 나이에 낯선 만주로 시집가 동네에서는 '만주댁'으로 불리는 어머니는 낯설고 물신 이국땅에



JACARANDA

서부터 고된 시집살이를 하였다. 몇 년 후 살벌한 시베리아 바람을 등지고 어머니는 삼남매를 업고 걸리며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정착했다. 그 후 남북의 이념 갈등은 육이오 사변으로 터졌고, 아군이 작전상 일사후퇴를 하자 인민군이 몰려왔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전쟁속의 폭탄같이 불안했던 어머니는 남은 살림과 자식들을 전쟁의 쓰나미 속에서 홀로 지켰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설상가상으로 어슬픈 피란생활 중 영도다리 근처의 삭막한 판잣집에서 내가 태어났으니 아기는 축복이 아니라 떨칠 수 없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자카란다가 동치의 크고 작은 흠집과 상관없이 고은 보랏빛 꽃을 피우듯, 생명이 마구 파괴되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어머니와 나는 꿈을 수 없는 땃줄로 이어져 있었나 보다. 그 후 강물 같은 세월은 쉬지 않고 흘러 여섯 자식만을 믿고 어머니가 먼 미국까지 오셨으니, 당시의 얼룩진 가슴에는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의 역사만큼이나 모진 화상(火傷)이 일그린 채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자식 모두에게 골고루 퍼진 어머니의 사랑같이 나무 전체에 고르게 핀 자카란다 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전신에 행복의 웃을 걸친 듯 온통 보랏빛으로 물든 자카란다 꽃은 마구 쏟아지는 기쁨이다. 차가운 겨울을 견딘 외로운 침묵과 앙상한 별뿔을 힘들게 지킨 인내가 마침내 보랏빛 웃음꽃으로 피어난다. 바람이 불자 자카란다의 온몸을 흔들며 세상을 향해 흐드러지게 웃는다. 꽃이 웃을 때마다 단내 나던 힘든 삶은 아름답게 피고,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어려웠던 생(生)에는 기쁨이 물결친다. '삶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끝내는 살아남는 이

어머니날에 피어나 어머니의 사랑을 예

찬하는 자카란다 꽃. 오월의 봄을 나는 자카란다 꽃을 통해 찬미하고 싶다. 꽃이 보랏빛이라면 그것은 붉은 색과 파랑 빛의 두 원색이 합친 것이다. 파란빛이 이성적인 사고와 푸른 미래를 의미한다면 붉은 색은 정열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일 것이다. 따스한 사랑과 이성적인 사고가 합친 어머니를 닮은 보랏빛 자카란다 꽃. 어찌면 자카란다 꽃은 오월의 붉은 해와 한없이 큰 파란 하늘이 합친 보랏빛이기에 따스함과 끝없이 넓은지 모르겠다. 자카란다의 원만하게 집안을 다독이는 어머니 같이 아담하고 등글게 하늘과 세상 사이에서 있다. 그러기에 하늘의 소리와 자연의 이치를 아우르는 나무처럼, 어머니는 하늘의 소리와 세상의 도리를 내가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셨다.

쏟아지는 더위 속에서는 보랏빛 그들이 되었다가 추운 바람 속에서는 가지마다 햇볕의 길을 열어 따스하게 주위를 만드는 지혜로운 자카란다. 나무는 보랏빛 품안으로 스민 햇볕과 잠시 스치는 바람조차 가슴으로 품었다 긴 가지와 부챗살 잎의 초록빛 사이로 여과하며 봄을 풍요롭게 장식해 간다. 봄꽃을 피우지 않으면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는 자카란다. 멀리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서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자식 모두에게 골고루 퍼진 어머니의 사랑같이 나무 전체에 고르게 핀 자카란다 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전신에 행복의 웃을 걸친 듯 온통 보랏빛으로 물든 자카란다 꽃은 마구 쏟아지는 기쁨이다. 차가운 겨울을 견딘 외로운 침묵과 앙상한 별뿔을 힘들게 지킨 인내가 마침내 보랏빛 웃음꽃으로 피어난다. 바람이 불자 자카란다의 온몸을 흔들며 세상을 향해 흐드러지게 웃는다. 꽃이 웃을 때마다 단내 나던 힘든 삶은 아름답게 피고,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어려웠던 생(生)에는 기쁨이 물결친다. '삶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끝내는 살아남는 이



백 순 (법대 58)
는설위원

저성장 세계경제 전망과

경제 흐름

미국경제는 2019년 1/4분기 GDP 성장 3.2%와 2019년 4월 실업률 3.6%로 호황을 누리고 있음을 경제지표는 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금년 후반부터 1년 내지 2년내에 저성장과 높지는 않지만 침체마저 예측하는 경제전망을 내 놓고 있다.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의사록(2019년 3월 19일-20일)에 의하면 2019년 후반에서 2021년 내에 GDP 성장이 얼마간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기록되어 있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실시한 경제학자들의 경제전망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12개월내에 경제침체를 확률이 26%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저성장 전망과 연계되어 세계경제도 저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예측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2019년 1/4분기에 저성장의 추세를 들어내고 있다. 선진경제국인 유럽연합과 일본이 각각 GDP 1.2%와 0.2%의 저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개발경제국 가운데 중국 6.4%와 인도 6.6%를 제외하고 브라질 1.1%와 러시아 2.7%의 저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에 발표된 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은 2018년 3.6%에서 2019년에는 3.3%로 저성장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경제를 위시하여 세계경제가 침체(Recession)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성장(Slow/Low Growth)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는 몰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 경제의 흐름(Trends of Economy)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어쩌면 그 경제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들어 날 중장기적인 세계경제의 성장을 예측하는 데에 좋은 지침이 될지 모를 일이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전망 가능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들어내고 있는 경제의 흐름 4가지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첫째 경제흐름은 현대기업의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각수(Unicorns) 첨단기업들의 엄청난 손실이다.

스위 FAANG (Facebook, Amazon, Appl, Netflix, Google)등 현대기업에 앞장을 서고 있는 여러 첨단기술기업들이 급격한 과잉수익증진(급격한 기업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나친 할인을 시행하는 충격공격전략(Blitzscaling)의 경영을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장기 손실을 결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 12첨단기술기업들의 설립이후 2018년까지 누적된 손실액이 무려 4백7십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실적이다.

첨단 기술회사들의 충격공격 전략 경영은 경쟁이 치열해 저서 앞으로 얼마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세계경제의 전망이다.

둘째 경제흐름은 석유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하고 있는 현상이다.

서 텍사스 중간 원유(West Texas Intermediate Crude Oil)와 브렌트 원유(Brent Crude Oil)의 값이 배럴당 2016년 \$35에서 2019년 5월 3일 현재 각각 \$61.94와 \$70.85로 무려 77.0%와 102.4% 폭등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에너지 위기에 이르는 정도의 규모는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유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즉 이란과 리비아의 사태와 베네수엘라의 규제등 일련의 국제문제가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견해 주고 있다.

셋째 경제흐름은 경제 선진국이든 경제 중진국이든 민주주의 정치가 인가주의 (Populism)와 영합될 가능성이 농후해 저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화폐 정책의 독립성 (Independence of Monetary Policy)이 정치화 (Politicisation)로 인하여 훼손되어 가는 경향이다.

40여년전 미국경제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10%이상으로 동반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겪게 된 것은 중앙은행의 화폐정책이 정치화의 영향을 받아 확장화폐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높은 실업률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결과하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의 독립된 화폐정책에 정치적으로 간섭 (Interference) 할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들어 내고 있는 현상이고 앞으로 얼마간 지속될 전망이다.

넷째 경제흐름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번져 나가고 있는 경향이다.

특히 18세-29세의 미국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 가운데 51%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있는 현상이다. 밀레니얼 사회주의 (Millennial Socialism)는 경제민주화 (Democratization of Economy)와 전국민 메디케어 (Medicare for All), 그리고 그린 뉴딜 (Green New Deal) 등을 제창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단순한 소득재분배를 뛰어 넘어 부와 힘의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고, 전국민 메디케어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주장하는 구호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의료혜택을 배분하도록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정책이다. 오카시오-코르테즈 (Ocasio-Cortez) 가 내세운 그린 뉴딜은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방대한 투자를 하는 뉴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경제민주화, 전국민 메디케어, 그린 뉴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밀레니얼 사회주의는 정부 예산이나 관료정치나 사업경영의 측면으로 관찰해 볼 때에 어렵고 부담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금의 모든 경제를 움직이는 제도인 자본주의가 완전히 없고 문제점을 많이 안고

워싱턴 DC 동창회, 경력 개발 및 구직 세미나 개최

DMV 지역사회 한인 대상



【기사. 문형식 (농 81)】

서울대학교 워싱턴지역 동창회가 메릴랜드 대학 학생회와 협력하여 '경력개발 및 구직 세미나'를 기획하고 지난 3월 29일 (금)에 그 첫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리 동창회 워싱턴 지부가 DMV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봉사하는 활동을 늘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한 사업으로, 경력 개발 및 구직에 관심이 많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준비했으며, 메릴랜드 대학원 학생회 (회장: 김진업) 및 학부 학생회(회장: 김태영)와 여러 자원 봉사 학생들의 노력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 행사에는 메릴랜드 대학, 존스홉킨스 대학, 조지타운, 조지워싱턴 등의 여러 학교에서 학부, 석사 및 박사과정의 대학원생들과 postdoc들 뿐만아니라, NIH, FDA, USDA 등의 정부기관에서 postdoc 등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적지 않은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현재 전문 분야에서 경력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패널들까지 모두80명 가까이 참가했다. 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한 이 세미나는 밤 10시에 마쳤는데, 세미나를 마친 후에도 참가자들이 떠나지 않고 본인들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패널 주변에 모여 줄을 서서 질문 공세를 펼쳐 학생들과 포스터들의 취업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세미나는 (1) 구직 필수정보, 기업에서의 구인 과정 개요 및 이력서 작성, (2) 인터뷰의 요령과 주의 사항, (3) 미국 비자와 이민법, 이렇게 세 섹션으로 나누어졌다. 오프닝을 비롯, 첫 섹션 및 전체 진행을 맡은 제약회사 GlaxoSmithKline의 문형식 박사(농대 81)는, 참가자 중 가장 많았던 생물학 관련자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자료를 제공했으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들로 청중들의 공감을 자아냈으며, 참가자들이 개인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거리낌없이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예원,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음악이론 석사의 그야말로 소위 한국에서 음악 분야의 엘리트 과정을 밟다가 현재는 Ernst & Young에서 파트너로 기업의 정보 시스템 감사(audit) 일과 리스크 컨설팅 일을 담당하고 있는 다소 특이한 경력의 이주희 동문(음대 89)은, 인터뷰 기술 및 요령에 관한 주제를 맡아 본인이 지난 20년간 다양한 인터뷰를 받고 스스로 하

있는 이상 밀레니얼 사회주의에 버금가는 주장들이 끊임 없이 제창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세계경제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경제흐름인, 유니콘 첨단기술기업들의 엄청난

는 과정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노하우를 거품 없이 공개하였다. 인터뷰 준비 과정, 인터뷰 당일의 주의 사항 및 인터뷰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귀중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경험한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공유하며 참가자들과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안중국 박사, 한미장학재단 소개

문학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상근 (법대 75) 변호사는, 요즘 한인 학생들에게는 그 어느때보다 더 큰 관심이 있을 미국 이민법에 대해 다루어, 참가자들이 지루해할 틈 하나 없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30년에 달하는 로펌 파트너로서의 경력을 한 시간 내에 압축해서, 거기에 그동안 보아 왔던 많은 사례들을 겸해서 제공하였는데, 많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정해진 시간을 넘길만큼 활발한 질문과 응답이 이어졌으며, 못다한 질문들이 세미나가 끝나고 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어져 이민과 비자 취득에 얼마나 관심이 큰 지를 볼 수 있었다.

원래 순서에는 없었지만 시스템공학자로 일하며 현재 한미장학재단 미동부지구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안중국 박사가 한미장학을 소개하며, 그 재단을 통하여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이외에도 현재 서울대 동창회 정평희 회장 및 여러 명의 서울대 동문들이 청중석에 앉아 중간 중간 토픽에 맞는 본인의 경험담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메릴랜드 대학 Tawes Hall내에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세미나 홍보, 여러 행사 준비와 행사 당일 캠퍼스의 곳곳에서 참가자들에게 친절한 안내를 해준 한인 학생회 회장단의 활약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이 세미나는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도 시리즈로 계속 될 예정이다.

손실, 석유가격의 끊임없는 상승, 중앙은행의 화폐정책 독립성을 정치화로 훼손하는 인가주의, 밀레니얼 사회주의의 태동, 등 4가지 경향은 얼마간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9 Brain Network Workshop 강의 내용



고충성 (사대 71)

정밀의료 (Precision Medicine: From Gene to Medicine)

치료제 패러다임의 변화

2003년 인간유전체 완전 해독이후 지난 15년간 의료기술 및 신약개발에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치료제 개발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PM)이 등장해 현장에서 치료제를 쓰는 의사,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중사자, 그리고 병이 치료되기를 갈망하는 환자들 사회전반에 큰 활력소가 되어가고 있다. 정밀의료란 환자의 유전정보, 생활습관, 환경요인등을 토대로 정밀한 진단을 통한 정밀한 치료 (Right Treatment)를 적기 (Right Time)에 올바른 약 (Right Drug)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고, 개인적으로 다른방식의 약물치료를 하는 등 개인에게 정밀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가장큰 계기가 1990년부터 시작한 미국의 인간 유전체 해독 연구사업을 통한 2003년 인간유전체 완전해독이다. 아직도 2000년 백악관 로즈가에서 연구책임자였던 Craig Venter와 Francis Collins가 당시 미국대통령 Bill Clinton과 인터뷰하는 모습이 생생하다. 최근들어 세계각국은 정밀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2015년 오바마대통령은 연두교소에서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를 착수할 것을 천명했다(그림 1). 그는 "소아마비를 없애고 인간유전체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미국이 의학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막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유럽, 일본, 중국도 정부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민간부문 투자도 많이 되어 정밀진단을 위한 첨단기기 및 표적치료제 개발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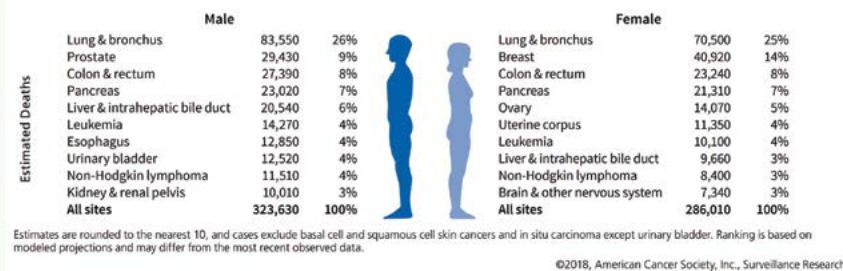


그림 1. 정밀 의학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오바마, 2015

정밀 폐암피로제 필요성

암세포는 정상적인 분열과 증식을 벗어나 사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특성

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써오던 대부분의 항암제들은 이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암세포 뿐만아니라 정상세포들도 함께 손상을 입히게 된다. 표적치료제는 암세포에서만 특정적으로 발현되는 특정단백질이나 유전자 변화를 표적으로 삼아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제다. 이런치료를 할 경우 부작용이 적으며 더욱효과적인 암치료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비유를 하자면 월남전쟁에서는 B-52이라는 전폭기가 포탄을 적의 지역에 용단으로 폭격하는 바람에 많은 민간인의 사상자를 낸 반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는 토마호크라는 미사일을 사용해 민간인의 사상을 최소화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적군은 암세포로, 민간인은 정상세포라고 비유 할 수 있다. 이번 Brain Network에서는 정밀의약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암종에서 사망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폐암치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2018년 미국암학회의 보고서를 보면



폐암은 발생빈도는 2번째이지만 사망률은 1위를 차지하는 암에 해당한다.

폐암의 종류

폐 암은 병리소견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이유는 둘 사이의 생물학적 성질, 치료 방법 및 예후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계상 비소세포폐암이 85% 정도를 차지하며, 소세포폐암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비소세포암은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으로 분류하고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비소세포폐암 (Non-small Cell Lung Cancer)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편평상피세포암이 약 55%로 가장 많으며 선암, 대세포암이 뒤를 따르고 있다. 비소세포폐암은 소세포폐암에 비해 일반적으로 진행속도가 느리며, 단계적으로 주변의 림프절을 거쳐 전신으로 퍼져 나가므로 1, 2, 3, 4기로 병기를 나눈다.

편평상피세포암 (Squamous cell carcinoma): 폐암 중 흔한 형태로 폐 중심부에 주로 발생하는 암이다. 폐문 가까이의 비교

적 큰 기관지, 즉 공기가 지나다니는 부위에서 발생하므로 초기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객담 세포진 검사로 조기 진단이 용이하며, 흡연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암(Adenocarcinoma): 폐의 가장자리에 주로 발견되는 암으로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폐암의 가장 흔한 형태로, 비흡연자에서 잘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며, 다른 원발 병소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비흡연자에서 발생하는 폐암의 약 6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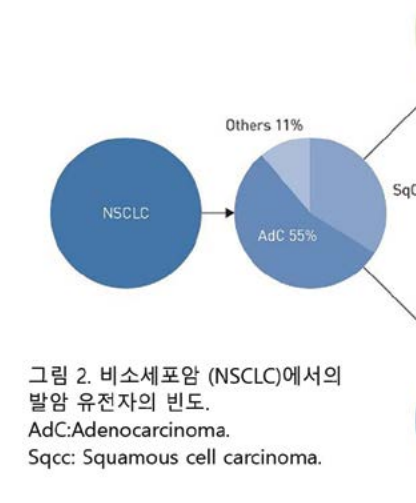
대세포암(Large-cell carcinoma): 가장 드문 종류의 폐암으로 임상적 성상이 선암과 비슷하며, 주로 폐의 말초부에 발생하여 흉막 침범을 빈번하게 일으킨다.

소세포폐암(Small Cell Lung Cancer)

소세포폐암은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초기에 전신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으며, 역시 흡연과 연관성이 높다. 비소세포폐암과 달리 1~4기로 구분하지 않고 제한기, 확대기로 분류한다. 제한기는 한쪽 가슴안에 암이 국한 되어 있는 상태이며, 확대기는 반대쪽 가슴이나 다른 장기로 암이 진행 된 상태이다.

이번 SNU Brain Network에서 EGFR이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 환자에게 1차 치료제인 Iressa나 Tarceva를 복용시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인 Gatekeeper T790M돌연변이가 생겨 항암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Lazertinib은 이 Gatekeeper T790M 돌연변이에 잘 들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3세대 폐암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그림3).

정밀의학 관점에서 폐암 치료제 개발 현황



폐암은 비소세포폐암을 중심으로 표적항암제가 가장 많이 연구개발 되어 있고 최근 FDA의 허가를 받은 신약도 개발되어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비소세포폐암은

돌연변이 유전자에 따라 EGFR, ALK, PTEN, RET, ROS1 등의 여러 형태의 유전자 변이로 인해 암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변이를 타겟으로 해서 정밀의학 항암제를 개발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림 2에 각 유전자 변이의 빈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는 NSCLC폐암이라 하면 그냥 한 종류의 암으로 여기고 자세한 유전자 변이에 대해 자세히 몰랐으나, 2003년 인간유전자 해독 후 많은 염기서열 분석법의 개발로 NSCLC 내 매우 다양한 유전자 변이가 생겨 암이 유발된다는 것을 알아 냈다.

가장 많은 표적 항암제로서는 EGFR을 타겟으로 하는 Tarceva, Iressa, Gilotrif, Tagrisso가 있고, 두번째로는ALK를 타겟으로 하는 Xalkori, Zykadia, Alecensa, Alunbrig, Lorlatinib등이 환자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치료비가 한자 10만원~15만원의 고가의 치료제여서 환자의 부담이 큰 점이다. 한국의 경우 폐암 환자의 80~90%는 비소세포폐암이고 이 중 EGFR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 폐암의 빈도는 약 45%에 이른다. 특히 비흡연자에서의 EGFR변이 빈도는 흡연자 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담배 안피우는 동양여자의 경우에 EGFR변이가 가장 높은 환자군에 속한다.대부분의 약이 고가이기 때문에 처방을 하기전에 유전자 돌연변이의 유무를 값싸게,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유다. 최근에는 PD-1이나 PD-L1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인 Keytruda나 Opdivo라는중양면역치료제가 폐암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고, 이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PD-L1 면역염색을 하여 PD-L1의 발현정도를 측정하여 투약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SNU Brain Network에서 EGFR이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 환자에게 1차 치료제인 Iressa나 Tarceva를 복용시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인 Gatekeeper T790M돌연변이가 생겨 항암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Lazertinib은 이 Gatekeeper T790M 돌연변이에 잘 들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3세대 폐암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그림3).

그림 3. 비소세포암 (NSCLC)에서의 발암 유전자의 빈도. AdC: Adenocarcinoma, SqCC: Squamous cell carcinoma.

Lazertinib구조 및 효과). 뿐만아니라 EGFR로 인하여 폐암에 걸리면 대부분 뇌로 전이되어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데 GENOSCO가 개발하고 있는 Lazertinib은 뇌에도

2019 Brain Network Workshop 강의 내용



소강표

Next-Generation Super Materials through NanoEngineering

Dept. of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M. I. T. Cambridge, Massachusetts, 02139, USA

Abstract

Historically, materials have been vital to the advancement of society and ages are branded based on materials, such as the Stone Age, the Bronze Age, and the Iron Age. Due to world energy consumption and the growing environmental crises, contemporary society demands new materials with advanced properties: lighter, stronger, more robust, and more functional. However, traditional engineering limits these properties, slowing the growth of new technology. Nanoengineering enables us to explore new properties past these conventional limits. Nanoengineering allows control of the location of atoms in the materials, creating complex nanostructured materials. This atomic engineering generates a nanoscaled one-dimensional network in metallic matrix composite. This composite shows superb properties that enable the improvement of life by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

Metals are very important materials that have made an impact on our history and have changed our lifestyle ever since they were discovered about 5,000 BC. Its immediate impact was an increased productivity in farming, harvesting, and storage, resulting in population explosion from about 1 million to hundreds of millions worldwide (Fig. 1) and development of civilizations. Nations were born; politics, economy, culture,

military and religions emerged. In particular, development of power-

period and it became very famous amongst metallurgical society which has been used for a filming material today. This sword is called a Damascus sword which led to Muslim victory. It was lighter and tougher than the thick, blunt Crusader weapons making it easier to carry and faster to swing. There is a famous anecdote about the Damascus sword. King Richard of the Crusaders cut iron mace with his sword and boasted about his weapon, but King Saladin, a Muslim, slices silk as he

legendary sword was used in the recent movie "Alita." This legendary sword turned out to have the quality based on nanotechnology which is unknown during the Middle Ages. A modern electron microscope showed that carbon nanotubes were used in the sword. Carbon nanotubes are known to be mechanically strong with hundred times the strength of iron which explains strong properties of the Damascus sword. Throughout iron ages and middle ages, these metal materials performed well. The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roductivity in the economy and were used as tools for warfare.

In the modern age, James Watt invented the steam engine in 1776, an indispensable invention which could not have been created without metals. Paul Héroult, a French engineer, and Charles Martin Hall, an American engineer, began producing lightweight aluminum in 1886, which contributed to transportation, aviation, consumer electronics and the space industry. In 1903, the Wright brothers built an airplane using aluminum.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se metallic devices during the twentieth-century industrial revolution not only provided convenience but demanded a large amount of energy consumption.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ubmitted a report in October 2018 called "Global Warming of 1.5C" in Incheon, Korea. The IPCC report urged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new materials. We have a modern materials mission to develop stronger, lighter,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easier-to-deploy as a market product. For example, making lightweight and strong materials can make cars lighter, and light cars travel with lower kinetic energy, which means less fuel and fewer emissions of environ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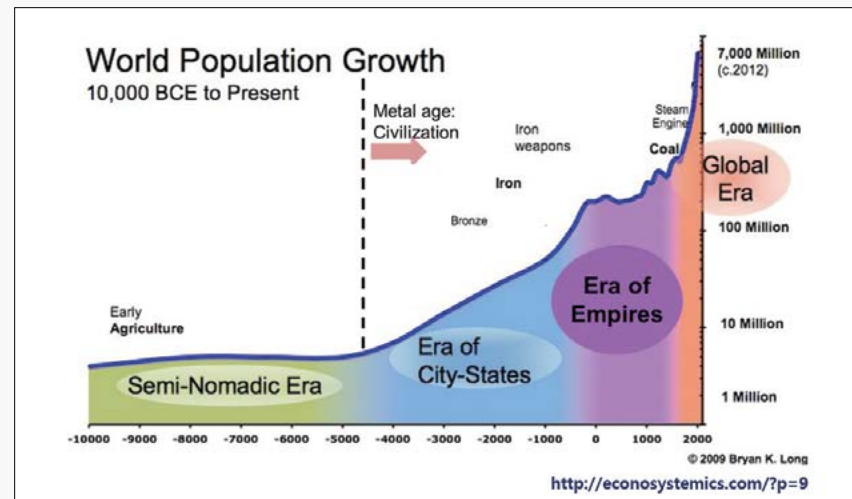


Fig. 1. Human Population through the 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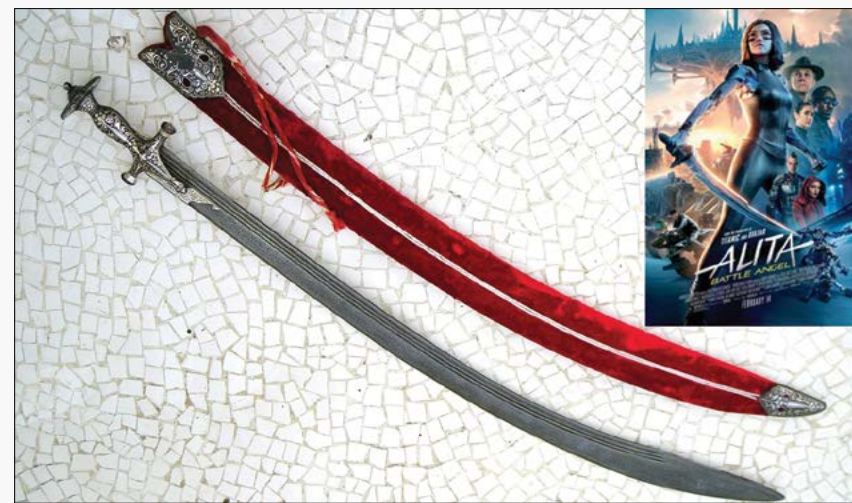


Fig. 2. Photo of the legendary Damascus sword and Damascus sword in a pamphlet of the movie "Alita"

ful weapons was critical to national survivals. A legendary metal sword using iron was invented during this

threw it on his Damascus sword to demonstrate how sharp his weapon was. As shown in figure 2 in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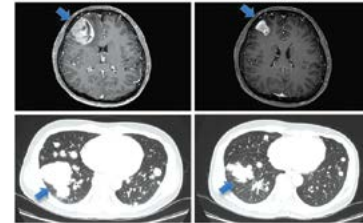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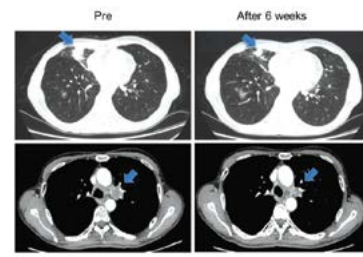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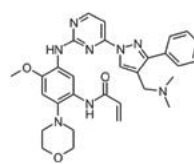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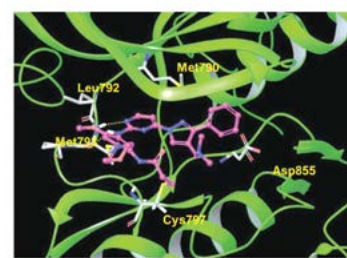


그림 3. A. Lazertinib의 구조와 EGFR L858R/T790M 과 결합모델, B. 폐와 뇌에 있는 암이 Lazertinib의 복용으로 줄어든 사진

침투하여 뇌전이 암환자에게도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항암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3). 아직 후기 임상도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의 임상 2상 결과를 보면 항암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큰 신약 후보임에는 틀림없다,

되돌아 보면, Lazertinib이 정밀의학 치료제 개발에 하나의 Best Practice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5명의 출

판 서울대 동문을 포함한 Genosco 연구진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Lazertinib 공동개발에 참여한 오스코텍, 유한양행, 임상을 주관하시는 연대의대 조병철 박사의 헌신적인 임상개발과 임상에 참여한 환자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의 참여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본다. 끝으로, 남은 임상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세계적 항암제가 되어 전세계 환자에게 큰 치료 효과를 투자자들에게는 큰 경제적 혜택을, 훌륭한 서울대 동문 과학자들을 더 채용해서 더 좋은 항암제를 개발하여 성공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9 Brain Network Workshop 강의 내용

tal gases. The use of less material will reduce the amount of material produced in the industry. Metals, unlike plastics, are mostly recyclable.

New nanostructured metallic materials enabled by nanoengineering could be the needed solution to meet the current demand for materials which are convenient and environmentally safe. Nanotechnology controls a small size scale that is a thousand times smaller than a human hair. Nanotechnology can tune the chemical, physical, mechanical, therm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existing bulk materials. Nanoengineering will be a new paradigm for making and using high-performance structural materials beyond the design space of alloys alone. We propose to adapt nanoengineering to change the paradigm of metallic alloys. Over the last five millennia, alloys have been playing a significant role to meet human needs, resulting in an annual trillion-dollar market. However, the laws of thermodynamics limit our ability to control the microstructure. For example, there is a limit to the maximum solute concentration before unwanted phases precipitate. Similarly, stability limits exist for grain boundaries, precipitations and dislocation networks. Thus, the actual strength of conventional bulk metallic alloys is far less than even 10% of the ideal strength. If nanoengineering is sufficiently used, there is still the possibility to improve the mechanical strength of conventional metallic materials.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synthesis method of carbon nanotube metallic composite through nanoengineering

As an example of conventional metallic materials, aluminum is widely used in modern society including transportation and aerospace. Transportation accounted for 28% of global energy demand and 23% of global energy-related carbon dioxide emissions. If we increas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aluminum in transportation, fuel

consumption and carbon dioxide emission will significantly decrease as the weight of vehicles and kinetic energy will be reduced. As the usage of materials in the application is reduced, we can save energy used for production. The industry sector is the largest end-use sector, both in terms of final energy demand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ts direct carbon dioxide emissions currently account for about 25% of total energy-related and process carbon dioxide emissions. In 2018, our team wrote a journal paper regarding a new nanostructured composite material using nanoengineering. The atoms on the metal surface at the nanoscale are so active that the metal behaves like liquids. We can utilize this nanoscale science to create nanosized complex structures in metals. Using this phenomenon, we were able to mix the carbon nanotubes (CNTs) in aluminum. As CNTs are known to have extreme strength and flexibility, mixing and dispersion into common material enhance the properties of metal such as aluminum. However, carbon cannot be mixed with metal due to its mismatch. It is twenty times more difficult than mixing water and oil. Using nanoengineering, we demonstrate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properties of aluminum, such as room-temperature tensile strength, toughness and high-temperature creep strength of alloys without sacrificing tensile ductility, electrical conductivity or thermal conductivity. This enables a strengthening technique for metals that reaches into the ideal-strength regime, far beyond what is possible with compositional based techniques.

To conclude, materials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society, but our modern era has a task to resolve environmental issues.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is not the only option but also a sustainable solution for the existence of mankind. Nanoengineering can enable us to explore new properties past the conventional limitations of material. As nanoengineering allows for the creation of new complex nanostructured materials, the superb properties of this material enable the improvement of life by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

Acknowledgment

Special thanks to Rachel Batista and Prof. Sydney Yip for persistence supporting and editing these articles

소통을 통한 전문 지식의 대중화

소강표

지난 4월 서울대 미주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브레인 네트워크 행사가 있었다. 사회에서 과학, 의학, 정치, 경제, 경영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발표와 토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며 전문지식을 대중화 하고자 노력한다. 올해는 "Dream to Reality, 꿈을 현실로"라는 주제로 과학과 응용 분야를 접목시켜서 행사를 했다. 그 중 나노분야와 바이오 분야를 선정하였는데, 나노분야의 전문가로 나를 초청연사로 불러주셨다. 행사는 70여 명의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장소는 MIT의 Stata center에서 개최하였다. 혁신포럼을 진행하시는 보스턴의 총영사님도 바쁜 시간을 나눠서 자리를 빛내 주셨다.

참여자 많은 분들이 현역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을 손수 건설하셨던 주역이다. 그분들의 기억 속에는 전쟁의 고통, 가난, 이념 갈등 속에서 이룩한 대한민국이 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과 부족하게 흘러온 역사도 모두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작년에는 반도체의 선구자였던 강기동 박사를 찾아내어 연사로 초청하였다. 이런 행사를 통하여 치열한 냉전의 역사속에서 당시 전문 지식과 기술인 반도체가 어떻게 우리나라 시작됐는지 알게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강기동 박사는 작년의 발표를 계기로 올해에는 "강기동과 한국반도체"라는 자서전을 출간하여 지난 40여 년의 간직하였던 비밀을 대한민국에 전해 주셨다.

또한 브레인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과거를 알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래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고있었다. 재작년에는 인공지능을 화두로 하여 강연을 하였다고 한다. 인공지능은 MIT에서 올해 \$1b, (1.1 조원)을 투자하여 College of computing을 개소한다고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2년 전에 브레인 네트워크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 것이라 예측하여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예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이 또한 올해에 "인공지능과 음악"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브레인 네트워크는 다방면에서 전문지식의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다.

나는 내가 과학분야 강연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연후 과학적인 연구에서 철학적인 관점과 윤리적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청중 중에 한 분은 "기술의 수준이 신의 영역으로 접근해가는데, 과연 인간은 이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은 한동안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질문은 하신 원로님은 역사 속에서 기술발전의 양면성을 잘 알고 계신듯했다. 초기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등대부분

의 새로운 기술은 모두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 재료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기에 윤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듯하다. 과학자이기 이전에 대중의 한명으로 기술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행사의 아쉬운 점도 있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어찌 보면 이런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집단이 전문지식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행사를 학교에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는 너무도 저조하였다. 총동문회 회장님께서 학생회장에게 직접 공식 서한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물론 정보가 완전히 전해지지 않았던 것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보면 소통의 부재였던 것인듯하다. 평소에도 서로에게 소통이 부족하니 정보가 쉽게 전해지지 않은듯하다. 어쩌면 학생들과 원로님들과 관심사와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수업과 학위 그리고 나중에 직업을 구하는데 더 집중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 학업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혹은 논문을 출간하지 못하면 나중에 직업을 구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 지금 당장도 불투명한 학생들의 미래에 30년 후의 비전을 토론하고 전문지식의 대중화 하려는 요청은 외팔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세대 간의 격차와 소통의 부재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은 MIT의 한인 교수님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점이다. 총동문회 윤회장은 성심성의껏 행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며 MIT 한인 교수님들에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서한을 보냈지만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분들의 전문성을 한인 사회에 전문지식을 대중화하여 방향성을 토론하는 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런 측면에서 MIT의 교수님들의 참여는 한인 사회에 대한 사회봉사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분들은 시간을 내어 한인사회에 대한 봉사하기에 어려움을 보이는데 했다.

브레인 네트워크가 전문지식의 대중화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이끌어 가야하는 집단들과 소통해야하는 과제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성숙한 사회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그리고 계층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전문지식으로부터 다양한 해안이 나올 수 있는 건전한 문화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한(의대 60) 박사와의 대담

“미국 자선진료에는 많은 의료진들이 참여....한인 사회도 기금 모금에 동참”

대담:
김은한 동문(의대 60, 전 멜로즈 웨이크필드 병원 의사)

정태영 동문(문리 71, 미주동창회보 논설위원)

히포크라테스가 다시 강림降臨한다면 아마 김은한 박사에게 ‘의사 정신상’을 줄 것이다.

“아무 생각없어요. 오직 살려야겠다는 생각 말고는요.”

그는 자주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한다. 환자가 오면 오로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의사의 소명이라고 했다.



김은한 (의대 60) 박사 부부

- 미국엔 언제 오셨습니까?

“1974년 군 복무를 마치고 바로 왔지요.”

김은한 박사는 1966년 의대를 졸업한 후 5년간 국립의료원에서 일반외과 전문의 수련을 밟은 후 군의관으로서 군 복무를 3년 반 했다. 당시 그는 다리 무릎이 망가져서 신체검사에서 무중 판정을 받아 군 복무가 면제되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자원해서 갔다고 했다. 그런 열의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봉사 정신 때문인지 군에서도 군인들의 치료에 열성적이었고, 게다가 야간에는 다른 군의관들과 함께 군 밖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무료 야간 진료 활동을 열성적으로 전개했다. 당시에는 일반, 특히 농촌 지역의 의료 시설이 열악했었다. 이런 활동이 알려져 정부에서는 공로상을 수여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적 복무와 봉사활동은 그가 복무한 1사단의 사단사에도 기록에 남이 있다고 한다.

- 군 복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미국에 오신 것이 좀 특이합니다. 특별한 동기라도 있나요?

“미국에 올 마음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김진복 선생님 때문에 왔어요. 서울대 의대는사이신데 제가 군에서 국군수도통합병원 외과 과장으로 있을 때 그 분은 국군수도통합병원 외과 고문(수퍼바이저)으로 계셨어요. 그때 김진복 선생님하고 수술도 하면서 자주 만났지요. 그런데 어느날 저에게 미국에 한 번 다녀오라고 그러셨어요. 배울게 많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때는 제가 좀 교만한 생각을 가졌지요. (서울대 의대 나왔는데) 최고 아니냐 하는 못된 생각 말이죠.”

하바드에 다녀오라고 해요. 김진복 선생님은 하바드 의대 협력병원(하바드 의대 생들의 실습 병원)인 브리감 앤 우먼 병원(Brigham and Woman Hospital)에 연수를 다녀왔어요. 김진복 선생님은 세계에서 위 수술을 제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위암의 세계적 권위자로 명성을 날리신 분이지요.”

“그래서 보스턴 대학병원으로 오게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김진복 선생님이 연락해 와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런

데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반, 미국에 남아있고자 하는 마음이 반 정도 있었어요. 결국 이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진복 선생님에게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김 선생님은 제 말을 듣고 ‘너 어쩔 그러나, 너 스카웃하려고 했는데..’ 하시면서 섭섭해 하시더군요.”

김진복 교수 (의대 52)는 서울대 의대 교수를 역임했다. 평생 동안 7만 여명의 위암 환자를 치료하는 등 위암의 세계적 권위자로 명성을 얻었다. 한국인으로서 세계적 학회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외과학회 회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국제위암학회 명예회장이고, 미국 암학회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의료계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되어 한국 정부는 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대한민국 학술원상 등 많은 상훈을 수여했다. 2005년에 별세했다.

- 그 후로 계속 미국에 계신 거군요.

“여기 저기 간 것도 아니고, 곧바로 이곳 보스턴에 와서 여기서 45년 동안 줄곧 있었어요. 보스턴이 좋아요.”

- 의사는 전문직이어 미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겠군요.

“정착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지요. 여기 온 것도 뭐 그냥 서류도 간단하게 해서 왔어요. 외과를 했고, 전문의까지 다 했으니까 알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지요. 미국 의사면허도 한국에 있을 때 다 얻어 와서 문제가 없었어요.”

일단 개인적 도미 과정을 알아 보았으니 다음은 미국 병원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기로 했다. 다 알다시피 미국 병원은 좀 복잡하다. 의료보험도 복잡하고..

-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병원기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약도 해야하고 또 주치의만 제도도 있어 한국처럼 아무때나 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국 방식이 맞습니다. 당연히 맞지요. 미국은 제네랄 프랙티서너(일반의, 프라이머리

닥터; 주치의)가 먼저 환자를 보지요. 웬만하면 제네랄 프랙티서너가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증상이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배정을 하지요.

환자가 처음에 제네랄 프랙티서너에 가면 최소한 15분은 봅니다. 한국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병원에 가면 2~3분 밖에 보지 않았어요. 많은 환자를 봐야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의사가 환자 얼굴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미국은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 시스템이 맞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에 정착하다 보면 미국에는 좀 특이한 채리티 병원(Charity Hospital, 자선병원)과 자선진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국 의사들의 70% 정도가 또 병원의 50% 이상이 이러한 자선진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자선진료를 하는 이유, 즉 그러한 의료 문화가 역사속에 자리 잡은 환경은 의료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민을 돌보고, 지역 공동체의 의료 환경을 개선 증진시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덕목이자 자신들의 책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병원들은 대신 정부로부터 감세 혜택 등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만큼 또 지역사회에 되돌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요즈음은 자선진료에 드는 비용 중 정부 보조로 약 50%, 나머지는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자선진료에 대해 물어 보았다.

- 미국엔 자선 병원, 자선진료가 특이하다군요.

“먼저, 한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매사추세츠 병원중에 흑자를 내는 병원이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모르겠지만 얼마전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어요.”

-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운영하는가요? 정부 보조를 받으나요?

“우선 첫째, 의사들이 돈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병원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기금 모금 활동을 합니다. 가끔 보면 병원에서 큰 시설 도입이나 최신 장비 도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기부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 브랜치가 많은데 새로운 검사 또는 치료 장비를 들여오면 한 군데에만 설치합니다.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이죠.

병원이 기금 모금을 시작하면 커뮤니티 리더들이 먼저 하고 또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해요. 간호사들도 모금에 많이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지요. 그 때 부상을 당한 사람이 내가 일하던 병원이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두 다리가 절단되었지요. 그런데 수술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에요. 편지가 필요해요. 재활과 평생 살아가는데 부조해서 도와주어야 하지요. 그 때 우리 병원 사람들이 모두 돈을 내서 도와주었어요.

기금 모금에는 한인사회도 많이 참여합니다. 보스턴에 거주하는 한인 중 김진동이란 분은 매년 거의 1만불 이상 기부를 해요. 주로 어린이 병원에 많이 했지요. 그외에도 몇몇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선치료와 관련해 한가지 말씀 드리면 미국에서는 환자가 오면 모두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지위가 있건 없건 모두 똑같이 대합니다. 인종, 경제적, 성별 등을 이유로 조금이라도 차별하면 위반이 됩니다. 병원이 등록을 받을 때 메디케이드 환자, 메디케어 환자다 해서 구분해 받으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미국은 무료환자, 이틀데면 메디케이드 등 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유료환자가 오하려 더 등록하기가 힘들어요.”

- 미국의 무료 진료를 제3국인들이 이용하는다는 이야기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제3국 출신들이 미국의 무료 진료 혜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치료는 미국에서 무료로 받고 살기는 본국에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꽤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제3국 출신들에게 나누어 주다보면 유료환자들에 돌아가는 자원은 제한받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불만을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비판이 들어오거든요.”

- 한국은 진료를 받기 전에 먼저 등록, 즉 돈을 내야 합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더군요. 일단 할 것 다하고 나중에 빌(청구서)이 날라 옵니다. 왜 그런가요?

“환자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니 까요. 돈은 그 다음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못내는 경우도 많아요.”



홍경삼 (문리 61)

거스름돈으로 나는 따스한 마음 I, II

I

한국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곳이 인사동 골목길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한국적인 작은 소품들이 보고 싶다고나 할까? 화방용품, 탈(가면), 부채, 벽걸이 등 볼 것이 많지만, 막상 산 것은 없다. 안국동에서 걷기 시작해서 탐골 공원까지 기웃거리며 내려오는데 여조카와 집사람이 “와~ 호떡이다!” 하며 입가에 웃음기가 만발하며 발길을 멈춘다. 10대 후반 여학생 4명이 조잘거리며 하나씩 받아먹으며 사라진다. 그들이 있던 포장마차 호떡 판 앞에 두 여인이 딱하니 버티고 서서 손으로 쓴 메뉴를 살피더니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를 하나씩 시킨다.

“당신은?” 하는데 솔직히 길거리에서 먹기가 무었해서 “난 괜찮아.”하며 사양했다. 50대 중반 남자 혼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을 정도로 바빠 주문 받는 데로 구워 준다. 굽는 동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보니 5천 원짜리 한 장 그리고 만 원짜리 몇 장 있기에 5천 원을 주었다. 그때 부인이 들어 오더니 굽던 빵을 뒤집으며 남편을 돕는다. 곧 호떡을 종이로 싸서 집사람에

“내가 아주 싼 보함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블루크로스 블루실즈(BCBS; 의료보험회사) 회장이 내 친구였어요. 알파로라고 내 친구이었는데 내가 물어 봤어요. ‘프리미엄(보험료)은 적게 내고 많이 커버하는 그런 것 뭐 없나?’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되 물더군요. 그래서 ‘한국인들에 많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돈은 적게 내고 많이 커버하는 그런 보험 없나?’고 물었지요. 특히 ‘큰.. 이틀데면 큰 수술 받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했죠. 그랬더니 그런 보함을 찾아 주었요. 그래서 이곳 보스턴의 한국인들이 많이 들었지요.

보험료가 600불인가 800불인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험이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했지요. 큰 수술 같은 것은 커버하게 하고 작은 것 이틀데면 감기나, 종기 치료 같은 것은 커버되지 않게 했어요. 아주 싼 보험이었지요.”

- 미국에는 프라이머리 닥터 제도가 있는데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응급실로 가야해요. 물론 응급실도 적격성(qualification)이 있어야 하지요. 급한 환자에는 에머전시 케어(emergency)와 어전트 케어(urgent)가 있어요. 서로 다르죠. 에머전시는 환자가 큰 상해를 당해 생명이 긴급한 위험성이 있거나 하는 경우예요.

어전트 케어는 감기인데 열이 많이 오른 다 하는 경우 같은 것입니다. 동네에 어전

게 넘기니 오른손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먹기 시작할 때 남자가 거스름돈을 앞에 있는 집사람에게 건네니 왼손으로 받아 주머니에 넣고 호떡 먹기에 열중이다.

“여보, 정말 맛있다. 한 입 먹어봐.”한다. “그 보다도 지금 받은 거스름돈 꺼내 봐.” 집사람이 거스름돈을 받을 때 얼핏 보니 오천 원짜리 그리고 천 원짜리 두장 같았기에, 거스름돈을 보지도 않고 내게 준다. 호떡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렇게 맛 있는 지... 내가 본대로다. 오천 원짜리를 주인 남자에게 주면서 웃으며 소리로 “아저씨 학교 다닐 때 산수 잘하지 못했구나.” 이 친구하는 말 “그러니까 이런 장사를 하지요! 실은 만 원짜리를 주신 줄 알았습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장사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사랑을 느꼈다.

비록 천 원짜리 호떡을 포장마차에서 구워 팔고 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 보기 좋았다. 행복은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많이 파시라 인사하고 돌아서는대 부인이

트 케어라고 간판을 내건 병원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전트 케어를 이용하는게 편리합니다. 어전트 케어는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급실과 관련하여 현 응급실의 문제는 정신과 환자가 너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 이후 정신과 병동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신과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환자는 간호원도 1명 갖고는 안되어요. 몇 사람이 달라 붙어야 하지요. 그러나 제한된 인원이거나 자원가지고는 너무 소모가 많아요.”

- 병원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고요, 지역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해 줄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항상 누가 해 주겠거니 하고 생각만 해요. 그러나 누가는 없어요. 항상 우리만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깨꾸로 가야. 말로만 끝나요. 그게 아니에요. 실천으로 가야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잘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잘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해야해요. 다같이 해야 해요.”

-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잠깐만 계세요.” 우리가 말하는 사이에 새로 호떡을 하나 만들어 주며 “따끈한 호떡 하나 드세요. 고맙습니다.” 물론 호떡도 따스했지만 오가는 정이 더 정겹고 따듯했다. 체면을 생각해서 길거리에서 호떡을 어떻게 먹느냐는 생각은 사라지고 정이 담긴 호떡 맛에 푹 빠졌다.

II

한국의 닭갈비 요리가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먹어 보질 못했다. 닭갈비에 무슨 살이 있다고 어떻게 요리를 했길래 맛있다고들 할까? 항상 궁금했다. 계육(雞肋) 하면 먼저 떠오른 것이 조조가 유비와 한중을 놓고 싸울할 때 조조가 군량미는 떨어지고 날새까지 고약한 어느 날 밤 오

늘 암호가 무엇인가? 묻는 부하에게 먹고 있던 鷄湯 속에 버리자니 아깝고 먹을 것도 없는 닭갈비를 보며 “계육이다.” 암호를 들은 총명한 모사 양수가 조조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후퇴할 준비로 짐을 싸기 작한다. 다른 병사들도 이를 보고 짐을 싸기 시작한 사실은 조조가 알고 양수는 참수를 당한다.

“아~, 네, 네, 아니 내가 왜 이리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 한다고 집사람이 늘 내게 말한 것이 생각난다. 여자들은 할 수 있는 모양이다. 글썽??? 식탁으로 돌아와 앉아 있으니 이 친구 셀프 커피를 4잔 뽑아 가지고 와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닭갈비에 무슨 살이 있고 맛있게 춘천방향 남이섬 입구 여기저기 닭갈비 전문집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집 여자 이름을 딴 무슨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니 손님이 별로 없다. 우리 앞에 펼쳐진 4인 분의 닭갈비는 통통한 살이 많은 닭살이 야채와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 보기 좋았다. 행복은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닭고기는 뽀뽀해서 평소 좋아하질 않았는

“아니에요. 지역 활동은 손이 부족해요 서로 다같이 도와서 해야해요.”

김은한 박사는 보스턴 한인사회에서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봉사와 한인 돕기에 헌신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스턴 지역 한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뉴잉글랜드 한인시민협회’를 창설하고 2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인 2세들의 정계 진출을 위해 노력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사장왕 5번이나 역임하면서 한인 2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전수를 위해 헌신하기도 했다. 뉴잉글랜드 한인인인 100주년 기념사업회 수석 부회장을 맡아 보스턴 한인사 발달, 보스턴 마라톤 제패 기념비, 유길준 기념비 설립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보스턴 합창단을 만들어 한인 연주자들의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한국정부는 대통령 국민포장 등 여러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보스턴 시의회도 그에게 한국 문화 보전과 소개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김은한 박사는 현재 보스턴에 45년째 거주하고 있다. 부인 이혜림 여사와 슬하에 각각 의사와 변호사인 1남 1녀를 두고 있다.

데 이것은 전혀 다른 맛으로 내 입맛을 돋로 호떡을 하나 만들어 주며 “따끈한 호떡 하나 드세요. 고맙습니다.” 물론 호떡도 따스했지만 오가는 정이 더 정겹고 따듯했다. 체면을 생각해서 길거리에서 호떡을 어떻게 먹느냐는 생각은 사라지고 정이 담긴 호떡 맛에 푹 빠졌다.

“아니~, 거스름돈 5천 원을 주워야지, 내가 낸 5만 원을 그냥 영수증과 함께 주는 이런 장사가 어디 있지?” 무슨 통화를 하기에 정신이 나갔나? 말도 안되는 계산을 하고 있으니..

“아~, 네, 네, 아니 내가 왜 이리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 한다고 집사람이 늘 내게 말한 것이 생각난다. 여자들은 할 수 있는 모양이다. 글썽??? 식탁으로 돌아와 앉아 있으니 이 친구 셀프 커피를 4잔 뽑아 가지고 와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닭갈비 맛있게 먹고 계육은 먹자니 먹을 것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이라지만 난 오늘 오만 원 그냥 가졌으면 마음이 꺼림칙했을 것이고 돌려주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먹을 것이 통통한 계육(오만 원)이지만 아낌 없이 버려서 타인을 즐겁게 했으니 마음이 즐거울 수 밖에.. 재물 대신 즐거움을 얻은 하루였다.

아 세탁업에 종사하는 많은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적극 앞장섰다. 당시 친환경 기계 대체 위기, 중국산 철제 옷걸이 덩펍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트 롬니 주지사, 마이크 혼다 의원 등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로 한국정부는 대통령 국민포장 등 여러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보스턴 시의회도 그에게 한국 문화 보전과 소개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 news@snuua.org / www.snuua.org

미주 동창회 제28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USA

6월 21일 (금요일)	6월 22일 (토요일)	6월 23일 (일요일)
1:00 pm - 2:00 pm 등록 접수	6:30 am - 8:30 am 조찬	8:00 am - 10:00 am 지부 회장단 모임
2:00 pm - 3:20 pm 이흥규 교수	9:00 am - 5:00 pm Spouse program (City tour, Metropolitan Museum 방문)	10:00 am - 3:00 pm West point & Hudson River 관광
3:40 pm - 5:00 pm 장태환 교수	9:00 am - 12:00 pm 제28차 평의원 회의	
5:30 pm - 9:30 pm 환영만찬 기조 연설 조태열 UN 대사	12:00 pm - 1:00 pm 오찬	
	1:00 pm - 4:00 pm 제28차 평의원 회의	
	6:30 pm - 10:00 pm 축하음악회(카네기홀)	

한국인의 기원과 DNA 추적, 이흥규 교수 파차와 캠프 미주최초의 한인 타운, 장태환 교수 UC Riverside 기조연설 (환영 만찬 중): 북핵 협상과 한반도의 미래 (조태열 UN 대사)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28차 평의원 회의

일시: 2019년 6월 21일 (금) ~ 23일 (일)
장소: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USA
Tel: 201-461-9000

리하고, group code에 F71을 타입하고 enter key 누르시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할인 가격 (\$139.00 plus tax, 14.625% / night)은 평의원 회의 기간 (6월 20일~24일) 동안 만 적용됩니다.

도착시간을 알려주면 도착 직후, 드라이버가 전화로 연락 줍니다.

2 Yellow Cab 이나, 우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비용이 한인 Call Taxi 보다 15~20% 비쌉니다

3 응급 상황이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다음 임원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남, 646-523-9606
허유선, 973-865-1749
문현호, 646-770-7028

호텔 예약 안내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019년 6월 9일까지 예약을 하셔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특별 할인 가격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Room rate: King or Double Occupancy \$139.00 plus tax, 14.625%/night) 더블 룸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더블룸을 원하시면 가급적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최용렬 님 (201-582-5214) 위 호텔 직원분께 직접 전화로 예약하시면 편리합니다.

2 서울대학교 예약사이트 www.fortlee.doubletree.com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Special rate code를 클릭

공항 교통편 안내

공항에 도착 후 한인 Call Taxi, Yellow Cab 또는 우버를 이용하여 호텔로 오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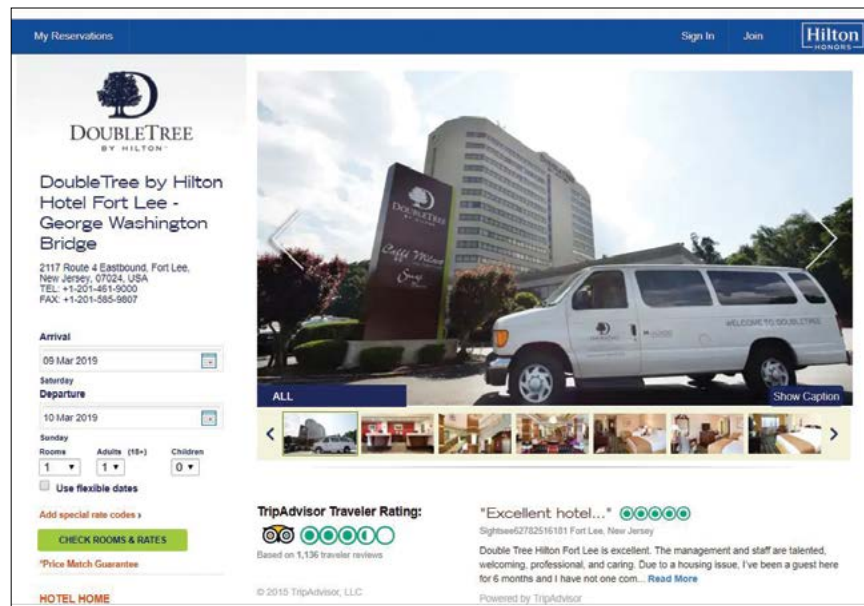
1 한인 Call Taxi 안내

JFK 공항 Taxi: 21 miles (\$50+Toll=\$70)
LGA 공항 Taxi: 14 miles (\$35+Toll=\$55)
EWR 공항 Taxi: 20 miles (\$45+\$14=\$59)

* 한인 Call Taxi (김 과장):

718-888-8888, 718-888-9999

* 한인 Call Taxi는 공항 도착 24시간 전에 예약하고, 예약시, 항공사, 항공편 및



(호텔 홈페이지 화면 캡처)

About 'Summer Fantasy'

글: 장수인 (음대 76)
Philharmonia Boston 단장

6월 22일 (토) New York Manhattan의 Carnegie Hall (Zankel)에서 열리는 제 28차 평의원회의 축하 공연인 'Summer Fantasy' 준비가 제15대 신응남 회장 중심으로 동문 음악인들과의 협력으로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 1부는 챔버뮤직 연주로 보스턴과 뉴욕, 필라델피아의 젊은 동문 연주자들 20여 명으로 구성된 'Soloists of New England'(SONE) 챔버그룹이 화려하고 우아한 'Summer Fantasy' 음악을 연주한다. 특히 Vivaldi의 사계 중 Summer 연주는 챔발로와 함께하여 고전 음악의 묘미를 한껏 선사하고 챔버, 5중주, 7중주 등 다양한 악기의 연주로 화려하고 상쾌한 실내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2부는 성공적인 음악가의 길을 달려오신 Soprano 강미자의 유명 한국 가곡과 아름다운 아리아들,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문현호, 장주훈, 노영환, 바리톤 한경진(우측 포스터에 사진 참조)의 아리아와 한국가곡의 솔로, 듀엣, 4중창으로 짜여 풍성하고,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미주 총동창회의 축하 공연인 만큼 여러 지역의 동문들, 선배가 함께 연주하고 연주하며 마음과 재능, 동문애를 나누는 뜻깊은, 최고 수준의 음악회를 꾸미고자 기획했다.

함께하는 세지역의 동문 연주자들은 각자의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리허설을 위해 NY와 Boston을 왕래하며, 서울대 동문들께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동문들께서, 아름다운 서울대인의 밤으로 추억될 소중한 카네기 공연에 꼭 참석해주시고 열렬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음악회 티켓 구입

미주동창회 축하 음악회 "Summer Fantasy"의 공연 티켓의 구입은

일반인은 Carnegiehall.org/CarnegieCharge 212-247-7800 or Box Office At 57th and Seventh Ave.을 이용하시고 (티켓 종류 \$50, \$40, \$30),

서울대 동문은 위 홈페이지 혹은 718-463-3131을 이용하여 구입 가능합니다. 동창회 hold 티켓 종류는 \$100, \$50입니다. 판매가 아니라 non-profit 후원의 형식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시작은 4월 15일부터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축하 음악회

Summer Fantasy

Saturday, June 22nd 2019 at 8:30 pm
Zankel Hall at Carnegie Hall
7th Ave. between 56th and 57th St. New York, NY 10019

TICKET 예매 : Carnegiehall.org | CarnegieCharge 212.247.7800
Box Office at 57th and Seventh

문의 : 718.463.3131 / \$100 \$50 \$40 \$30



Soprano: Mi Ja Kang



테너 : 문현호 바리톤 : 한경진 테너 : 장주훈 테너 : 노영환



Philharmonia Boston / Soloists of New England

주최 : 서울대 미주동창회 후원 :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뉴욕지역 골든클럽

협찬 : SeAH Steel USA LIC LIC HOTEL Peter Shin Law Firm Baby World Trading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FM82.7 WYAZON KOREA NY RADIO KOREA 뉴욕라디오코리아 Hansu Enterprises 백승원 위장내과 KUKBO

Celebration Concert for 28th Delegate Assembly of SNUAA-USA
Presen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조화유 (문리 61)

포슬유감

이것은 필자가 문리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한 1961년 서울대 대학신문 현상문 제작품 공모에서 수필부문 당선작으로 뽑힌 글이다. 심사를 맡은 국문학 교수 이 희승 박사는 선후평에서 “이 작품은 이를 잡는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훨씬 큰 세계를 응시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한다. 즉 작자의 인생관, 신관, 세계관을 포슬(이를 잡는 것)이라는, 보통사람이 관심도 안 가지고 주의도 끌지 않는 미미한 사실을 통하여 모색하려 한 것이 아닐까?

작자가 포슬이란 고투리로부터 출발한 것은 오히려 작품의 유머 (미味)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인생 혹은 우주(즉 신)를 아이러니컬하게 훑어보는 심정에서가 아닐는지. 요컨대 이 작품에는 예지와 철학이 내포되어 있으며 유머 미가 지극히 풍만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파안일소(破顔一笑)를 금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문장이 조금도 거북하거나 거침 새가 있지 않아서 펴 능숙 유려한 달필인 것을 사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오전 2시쯤이나 되었을까? 깊은 봄잠에서 무엇이 따끔 아무지게 아래쪽에서 쓰아대고 있다고 느껴지자 번개같이 내 반사중추는 오른손을 현장으로 급파, 이 무례한 도전자를 체포하고자 말았다. 엄지와 무명지 양 끝 사이에서 느껴지는 작은 날알의 안남미(安南米) 같은 녀석—안면 방해자이자 흡혈귀—바로 이 놈이 잠잠지 못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근처에서 나를 괴롭히던 속적이다. 벌써 몇 발을 버리고 버리던 농민지 모른다. 두 손가락 끝으로 그 놈을 슬며시 움직여본다. 굉장하 실이 찼구나. 고안 놈, 꿈쩍도 않는구나. 이젠 생을 송두리째 체념하고 의기양양한 정복자의 관대한 처분만 바랄 뿐이라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짜아식, 펍 쓴웃음이 나온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체포되다니. 그도 그럴 만하지. 소, 돼지도 그 부분을 포함한 넓적다리 일대와 허리춤의 살이 제일 맛있다니.

هن데 이 녀석을 그냥 둘 게 아니다. 빨리 처치해버리고 또 남은 잠을 푸욱 즐겨야 하니. 하지만 부드러운 두 손가락 끝으로는 이 놈의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다. 우선 불을 켜다 음 좀 두꺼운 종이 조각 위에도 잠깐 동안이나 이 녀석을 해방시켜준다. 그리고는 이게 웬 떡이냐! 단 꿈인지 생사인지 몰라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녀석을 입가에 만족스런 조소를 띄우며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서서히 그 종이 조각을 두 겹으로 접어서는 엄지손가락 손톱으로 점잖게 누르는 것이 정

상적인 방법의 하나다. 그러면 이 녀석 똑하는 최후의 비명을 남기고 선혈을 뿌리며 운명하겠지... 하하하!

나는 몸을 벌떡 일으켜 왼손으로 윗목에서 성냥을 더듬는다. 그러나 성냥이란 놈이 고맙게도 용하게 머리맡에 있어줄 리가 없다. 좀더 팔을 내뻗어 책상 밑을 더듬는다. 거기 도 없다. 약간 약이 오른 나는 이젠 아주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책상 위를 더듬는다. 그 순간 차가운 금속이 손 끝에 닿는 듯하더니 무엇이 줄줄 흐르는 소리가 난다. 간밤에 떠는 자리가 물이 쏟아진 것이다. 진작 방안에 물 그곳이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구태여 불을 켜고 종이로 싸서 손톱으로 압살하지 않고도 깨끗이 수장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그 그것으로 또 밥 담아 먹기가 약간 기분 나쁘겠지만...

아무리 다시 책상 아래위를 구석구석 더듬었으나 부엌에나 있을 성냥통이 나올 리가 없다. 가만 있자 공연히 없는 성냥만 찾다가 까딱하면 범인을 놓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니라 다시 이불 속으로 조심스레 기어 들어가서 제2차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5초, 10초, 1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녀석이 깨인 두 손가락 끝의 감각이 점점 무디어간다. 처음엔 분명히 그 놈의 불꽃만 배태기를 느껴 알겠더니 이젠 그저 맛있는 것 같다. 가만히 손끝을 움직여본다. 분명히 그 녀석이 내 수중(手中), 아니 지중(指中)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떡하나? 사방은 깜깜한데 불도 없다. 이라고만 누워 있다가는 어느새 또 잠이 들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녀석 또 처음엔 영문을 몰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순간 튀어 빠져라고 도망을 치겠지. 그 다음엔 다시 아가 그 피체현장(被逮現場) 근처로 접근해서는 복수전을 감행하겠지. 고안 놈.

울지, 이 녀석 혹시 요전번이 그 불행한 이 부부의 직계 자손쯤 되는지 모르겠다. 이 녀석을 번식물이 굉장하다니까 며칠 전에 천당간 그 부부의 손자쯤 될 테지. 그런 굉장히 큰 놈이 걸렸기에 더욱 통쾌하게 여기며 손끝으로 집어내서는 종이조각 위에 올려놓자마자 그 큰 녀석이 둘로 갈라지더니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기에 정신없었다.

얼른 종이를 반으로 접어 예의 방식에 따라 엄지 손톱으로 두 연봉을 압살형에 처하면서 나는 입가에 쓴웃음을 또 띄웠다. 좀 미안하다는 심정이랄까, 종족 유지라는 천부의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잔인하게도 이중 동물에게 무참한 희생을 당하다니...

그런데 이란 녀석들도 성감이 있을까? 원래 성감이란 조물주께서 종족의 유지가 잘 이행되도록 모든 동물에게 보너스조로 준 것 이라는데. 다시 말하면 아무런 성적 쾌감도 없이 그냥 생식작용을 해서 종족을 유지하라고 내버려두면 그 생식작용도 다른 육체적 활동이나 마친가지로 쉽사리 권태와 피로를 느끼게 되고 따라서 자칫하면 게을리하기 쉬우므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신께서 성감이란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설이다. 말하자면 성감이라는 것은 조물주 쪽에서 보면 생식작용의 촉매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것을 받은 동물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다른 본능적 욕망에 못지않게 중요한 쾌락의 대상이다, 이런 말이 된다. 원칙론이야 어떻든 좌우간 이 이 부부가 붙어 있다는 사실은 의식적인 종족 유지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쾌락의 만족 수단으로서임에는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인즉 더욱 미안할 수밖에.

그건 그렇고, hen데 이놈의 사형집행을 어떻게 한담. 방문을 열고 바깥으로 힘껏 던져 버릴까? 아니 그건 안 될 말이다. 워낙 쪼그만 놈이 돼놔서 너무 가볍기 때문에 멀리 던져질 리가 없지. 도로 휘날려들어와 코 앞에 떨어졌다가는 내가 통쾌한 기



문리대 정문 앞에서 사회학과 동기생들과 찍은 사진. 맨 오른쪽 키가 큰 학생이 필자. 그 옆이 후에 한림대학교장을 지낸 조봉계, 맨 왼쪽은 제일증권 전무를 지낸 김재룡(1962)

분으로 다시 잠을 청하고 있을 때쯤엔 이 녀석이 문틈으로 해서 또 침입하겠지... 나는 또 손가락을 약간 움직여 이놈의 실체를 재확인해본다. 분명히 아직도 거기 있는 것이다. 한참이나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이 녀석을 그냥 놓아 줄까? 문득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다가도 나는 스스로 훗치 놀랐다. 내가 왜 그 따위 생각을 한담. 벌써 이고 약한 흡혈귀에 대한 분노가 가셨단 말인가? 그 따위 중이나 하는 값싼 자비심은 필요 없다. 또 그렇게 몇 분 시간이 줄달음쳐 갔다. 눈꺼풀의 무게가 점점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런데 가만 있자, 내가 이 녀석을 죽일 권리는 분명히 있었렀다? 암, 있구말구. 인간 사회에서도 남의 안면을 방해하고 남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면 당연히 엄벌을 받게 마련인데 하물며 이까짓 이짐이야...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주어보자. 이 이란 녀석 그 도리밖에 없지 않나? 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다. 제가 뭐 천하의 수많은 동물 중에서 하필 인류에게 붙어서 그 피를 빨아먹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절친지한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 게고, 그저 그렇게 살게 마련되어 있으니 그러는 수밖에 아무 것도 없지 않나? 저는 저대로의 신성한 생존권을 주장, 실천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 아닐까?

도대체 이 이란 녀석을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일까? 그렇지, 제가 뭐 나타나고 싶어서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니지. 그 녀석이나 나나 아무런 선택의지도, 선택의 자유도 없이 그저 나온 것뿐이니까. 그런데 이 녀석 언제쯤 이 지구상에 그 존재를 처음으로 등록했을까? 다윈 옹의 그 진화론이란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면 대관절 어떤 놈이 진화라는 걸 해서 이 가공할 이란 녀석이 되었을까? 아니, 어쩌면 다윈 옹의 그 진화론인가 뭔가 하는 것도 영터러 수작인지도 몰라. 그 양반 제 괴락서니가 꼭 원숭일 닮았으니 까 저 혼자만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 온 인간의 조상이 모두 원숭이라고 그랬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성서엔 뭐라고 했더라? 옹지, 뭐 태초에 신이 있어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되어 있지. 그 신이라고 불리는 조물주가 있어 하루는 심심하다 못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땅덩어리가 생겼고 그리고 또 삼라만상이 차려로 생겼고...

그래서 에덴동산이란 걸 만들어놓고 보니 아무래도 무언가 미흡한 데가 있어 흠을 빚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이란 동물을 만들었는데 먼저 사내를 만들었다지. 그런데 혼자 두긴 안되었던지 그 사내의 갈비뼈를 하나 썩 뽑아서서 그 걸로 그의 여편네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자란 건 으레 사내 가슴팍에서 놀게 마련이리지. 그래놓고는 이들 두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다면서, 온갖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구... 그리고 서로 잡아먹고 먹히지 않고 무얼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호랑이나 사자나 노루 사슴이나 새들이나 모두 함께 의종게 살았다지... 그러다가 그 거룩하신 신께서 하루는 또 심심했던지 그가 밧이 만든 두 인간에게 어떤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해놓았다가 절없는 두 인간이 뱀이라는 녀석의 꾀에 빠져 이를 따먹자 그만 신께서 대노하셨다지. 그까짓 것 뭐 귀여운 어린애 재롱쯤으로 알고 더 귀여워할 일 이런만 웬지 크게 노하신 모양인지 그만 그 불쌍한 남녀를 에덴동산에서 내쫓고 말았다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다고 하자. 하나 그 죄 같지 않은 죄가 후손 만대에까지 미쳐야 할 까닭은 없지 않나? 구태여 그 후손에게 죄가 있다면 아무런 선택의 자유도 없이 그저 이 세상에 난 것 그 죄뿐이지 그 밖에 뭐가 있나? 형벌불소급(刑罰不遑及)의 원칙이 있으면 형벌불유전(刑罰不遺傳)의 원칙도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그건 그렇다 치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그때 그 에덴동산에도 이란 놈이 있었을까? 기독교에선 진화론 같은 건 극구 부인한다니까 그리고 또 무에서 유가 생기는 법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도중에 그저 우연히 생겼든가 하는 그런 수작은 말이 아니라 소리에 불과할 터이니, 그리고 보면 그때에도 분명 이란 녀석들이 있었으려다. 그러다가 그후 대홍수 때에는 아마도 노아 할아버지 네 가족의 팬티 속에서 그 생명을 보존해 왔음에 틀림없으려다.

그러면 그 노아네 가족들도 나처럼 이 녀석들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겠지? 이 무슨 신의 장난이란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그 전지전능하시다는 신의 일대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아, 신은 어쩌면 엉겁구기 짝이 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생물을 특히 동물들 저희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걸 보는 것을 소일감으로 삼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



김지영 (사대 69)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돈많은 신사 특등석에서 화물 칸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신사, 그 사람이 부인과 딸을 데리고 세계 여행을 떠난다. 이 년 동안 인생을 즐길 작정이다. 그와 같이 호화 여객선을 대서양 호 (the Atlantis)을 타고 나폴리를 거쳐 카프리 섬까지 여행했던 승객들 중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신사는 자신이 이 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호화 여행을 하며 인생을 즐길 자격이 충분하 있다고 믿는다. 첫째, 그는 돈이 많다. 둘째, 그는 지난 58년 동안 살아왔지만 지금까지의 삶은 산 게 아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했을 따름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에 모든 것을 걸고, 수 천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그의 공장에서 그의 미래를 만들어 주고 있었다.” “그 신사 일행을 태운 대서양 호는 호화의 극치이다. 유럽 최고의 호텔에 견줄 만한 시설 - 고급 레스토랑, 술집, 터키 식 목욕탕 등 - 이 갖추어 있고, 밤마다 무도회가 열린다. 선상에서 일간 신문까지 인쇄 배포된다. 같은 배를 타고 온 승객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사, 백만 장자, 작가, 세계적인 미인, 그리고 동양 어느 나라의 왕자 등.”

아이반 부닌 (Ivan Bunin)의 단편 소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신사 (The Gentlemen from San Francisco)>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1915년 작품. 부닌은 러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이다.

소설은 계속된다.

“그 신사는 유럽을 거쳐 이집트 그리고 멀리 일본까지 여행 스케줄을 잡는다. 대서양 호는 나폴리 항을 거쳐서 카프리 섬에 도착한다. 카프리 섬에서 내린 승객 중에서 그가 가장 성대한 환영을 받는다. 그가 머물 호텔의 주인까지 나와서 그를 영접한다. 그는 호텔 주인을 보자 잠시 깜짝 놀란다. 천 날 밤 꿈속에서 본 얼굴과 똑 같아서...”

“그 날 밤 호텔 볼룸에서 연회가 열린다.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나올 예정이다. 그 신사는 연회장에 가기 위해 옷을 입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이래 (It is awful...)’ 하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래도 연회장으로 간다.

그리걸래 소편하우어 씨, 인간은 곧 투쟁이며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뇌와 싸우다가 죽을 때에 그 무기를 손에 든 채 죽어간다고 했다. 서로 다른 종류끼리는 말할 필요도 없거나와 같은 종족끼리도 약육강식을 해야만 그 개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신이 오작(誤作)을 했다 말이다. 그리걸래 인간끼리도 죽을 때까지 서로 뺏고 뺏기고 죽이고 죽고 하는 것이겠지. 소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가가 노동자의 피까지 착취한다고 지껄이는 것도 오히려 당연한 그 잔인한 신의 섭리인지도 모른다. 그래놓고도 인간들

이여 서로 사랑할지어다, 서로 평화롭게 살지어다 운운하지... 어린애를 물에 빠뜨려놓고 웃 짓는 걸 나무라도 부수가 있지... 세 시를 알리는 열반 과중소리에 나는 얼른 눈을 떴다. 반사적으로 손가락 끝의 그 녀석을 오작(誤作)을 했다 말이다. 그리걸래 인간끼리도 죽을 때까지 서로 뺏고 뺏기고 죽이고 죽고 하는 것이겠지. 소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가가 노동자의 피까지 착취한다고 지껄이는 것도 오히려 당연한 그 잔인한 신의 섭리인지도 모른다. 그래놓고도 인간들



윤광현 (공대 78)

The Paradox of Our Age '탐욕' 어찌할 것인가?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무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 버렸고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위 시는 Seattle에 있는 Overlake Christian Church의 Bob Moorehead 목사가 1995년에 출판한 책 ‘경우에 합당한 말(Words Aptly Spoken)’에 ‘우리 시대의 역설(The Paradox of Our Age)’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던 글이다. 이 시는 지금도 Internet 상에서 수많은 Netizen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역설을 보태어 계속해서 연작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대 자본으로 쌓아올린 외향적 화려함과 성장을 향한 광기서린 속도감에 비해 점점 벌어지는 빈부간의 격차, 정신적 빈곤함, 삶의 의미의 상실, 타락한 심성과 오염된 환경으로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다. 우리 시대의 역설 한가운데는 현대인들의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려 이성과 절제의 Mechanism을 망가뜨리는 탐욕이 문제이다.

시인 임보는 ‘사자와 사람’이란 시에서 탐욕에 찌들어, 더불어 살아감 즉 ‘相生’의 이치를 망각하는 인간의 우둔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놓았다.

“배부는 사자는 사냥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먹이를 쌓아 놓고도 투쟁을 던진다 그러나 가장 많이 아사한 동물은 인간이다 사자는 제 몫만 챙기면 나누어 갖도록 하지만 사람은 공간을 만들어 먹이를 가두기 때문이다.”

“탐욕은 좋은 것이다.” 영화 ‘Wall street: Money never sleeps’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인 고든 게코의 대사다. 게코는 ‘탐욕처럼

투쟁을 계속하겠지. 나는 운명을 움츠렸다. 신경을 온통 한 곳에 모아 그놈의 행방을 탐지해야겠다. 어디서 또 슬금슬금 기미만 해봐라. 영락없이 다시 잡고 말 테다. 그때 틀림 없이 당장 극형에 처하고 말 테다. 그리고 신

미국 월가를 잘 표현하는 단어도 없을 것이라며 ‘탐욕은 옳은 것이고 탐욕이 일을 한다.’고 역설한다.

선지자 이사야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당대의 지도자들의 그림자를 다음과 같이 거칠게 지적하고 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56:11).

They are dogs with mighty appetites; they never have enough. They are shepherds who lack understanding; they all turn to their own way, each seeks his own gain.

그리고 현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인생의 마음에 약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자에게로 돌아가는것이라 (전 9:3)

The heart of men are full of evil and there is madness in their hearts while they live, and afterward they join the dead.

각기 제 길로 가는 ‘이기적 본능’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이라는 연료로 가는 물신주의라는 기관차는 전세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달리고 있다. 절제와 조화와 상생으로 가는 기관차로 옮겨 타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역설’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터.

읽었던 글 중에서 관련글을 엮어보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의 실패적인 이 세상에서 정복자의 패를 누리리라. 자, 이제 전투태세를 단단히 해야겠다. 생명은 곧 투쟁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투쟁의 무기를 안고 죽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 영터러 신의 설계에 따라서! <글>

회칙 위원회 2018-19년 회기 4/4 분기 보고



조화연 (음대 64)

본 위원회의 이번 회기의 4/4 분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4차로 계획된 이메일을 통한 정기 회의의 마지막인 제4차 회의를 지난 5월 6일에 마쳤습니다. 지난 3차 회의까지는 그동안 우리 동문회가 회칙에 관하여 지금까지 결정한 일들을 정리했지만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주로 앞으로 동문회 (평의원회)가 결정해야 할 일들을 상의 하였습니다.

모두 일곱 개의 큰 의제가 있었는데 첫 두 의제는 그 동안 없는 줄 알았던 우리말 회칙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생길 문제들에 관한 것이었고 다음의 다섯 의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아직 평의원회에서 토의 결정 되지 않아서 앞으로 상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첫째 의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법인단체로 존재하는 한 영어 회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말 회칙도 영역본과 함께 개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계속 수정해 가며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필요 없다"입니다. 이유는 1) 영문회칙이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졌고 훨씬 상세하여 회의 진행에 하자가 거의 없고, 2) 법적으로 필요시 (ex. auditing) 문제가 없고, 3) 역대의 요직에 있는 임원들을 보니 영문 By-laws에 익숙하여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없었고, 4) 다시 한글회칙을 사용할 경우 많은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새로운 용어에 익숙하게 되는 데 따르는 시간 소모 등입니다.

소수 의견은 "필요하다/있는 게 좋다"입니다. 이유는 우리 동문회가 미국에 있지만 우리의 공용 언어는 한국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의를 우리 말로 하고 회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우리 말로 결정하는데 어느 단계라도 그 단체의 공용어로 된 회칙이 있는 것에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의제는 영어 회칙과 한국어 회칙의 의미가 상충될 때에 어느 것이 우선이 될 것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평의원회가 첫 의제를 다룰 때 "우리말 회칙은 필요없다"고 결정하면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 "필요하다/있는 게 좋다"로 결정하여 두 version이 다 존재할 때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영문 회칙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공식 의견입니다. 이유

는 (1)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법, 정관, 그전 선례 (which was not superseded)의 순서로 precedence를 준다고 가정하고, (2) 본문을 법정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재판은 Delaware, 또는 어떤 주 지방 법원에서 하게 될 것이고, 재판을 영어로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 서류를 한글로 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각 다른 번역을 제출하게 되고, 그 번역에 관하여 전문가(expert)를 고용하여 어느 번역이 맞는가를 또한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순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a. 미국 (연방, 주, 지방)법에 저촉 되지 않는 것
- b. 나중에 결정되고 발효된 것 (결정되었지만 아직 영역이 안되었을 경우)
- c. 위의 조건들이 모두 동등하게 갖추어 졌으면 우리말 회칙 (회의에서 우리 말로 정한대로 번역이 안된 경우)

□ 이번 2019년 평의원 회의까지는 영어 회칙에 따라서 해야 함. 한국어 회칙은 없는 줄 알고 있었다가 지난 2018년 평의원 회의 이후에 발견 되었으므로 이번 평의원 회의의 결정에 따라 다음부터 실시해야 함

셋째 의제는 미주 동창회와 미주 발전기금과의 법적인 관계 정립 및 역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은

a. 현재 두 단체는 서로 아무 법적인 관계가 없는 별개의 단체이기 때문에 두 단체가 서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정립할 수 없고

b. "정립"이 언급되는 것은 아직 두 단체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 중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로 하는 일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도 잘 상의하여 좋게 되는 것이 바람직 하며

c. 두 단체가 서로 상대방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주기를 원하는 것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솔직하고 분명하게 알리고 서로 상의하여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은 옳고 좋은 것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의제는 각 지부의 IRS Rule에 따른 의무 및 미주 동창회 역할/책임 범위인데

회칙에 의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각 지부가 알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영문 회칙 참조 Article 4 (3)
(3) Each Chapter may be incorporated or unincorporated at its will and wish provided that its activities and affairs shall be managed by or under the direction of its own governing body in a

manner set out in its application for a Chapter of the Corporation, subject to and in conformity with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y-laws,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Corporation.

이 문제는 과거 수년 동안 많이 정비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는데 면세 혜택이 취소된 지부가 좀 있지만 회장단이 해당 지부에 알려서 그 지부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회가 생각합니다.

다섯째 의제는 미주 동창회 업무 수행 시 벌어진 수 있는 Liability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 여부 검토 (자금 관리에 대한 Officers negligence-misappropriate 부분 포함)인데

본 위원회의 견해는 Liability Ins.가 있으면 좋겠으나 예방 차원에서 '외부 감사'를 받도록 (maybe every 2 or 4 years)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만 경비가 문제 되어 비용 대 효과를 고려하면 아직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인가증 참조 Certificate of Restatement of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rticle NINTH: (f)

(f) Any person who is or was a director, officer, agent, or employee of the Corporation or is or was serving, at the request of the Corporation, as a director, officer, agent, or employee of another association, trust, or enterprise shall be entitled to be indemnified by the Corporation upon the same terms,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to the same extent as though he were a present or past director, officer, agent, or employee of an association of any type or kind organized under the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provided that his conduct or action was in furtherance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exempt purposes of the Corporation. Any repeal or modification of this paragraph by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prospective only, and shall not adversely affect any right of indemnification of a director, officer, agent, or employee of the Corporation existing at the time of such repeal or modification.

여섯째 의제는 회장 취임 시 동창회 회칙에 대한 선서 절차 (대통령 취임 시 헌법 준수 선서하는 것처럼) 도입 여부인데

이 절차는 회칙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공식 의견입니다.

소수 의견은 회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회순으로 이번엔 한번 실시해 보고 회원들이 좋아하고 원한다면 회칙으로 정하여 다음부터 취임하는 회장들에게 의무화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시한다면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하

나의 방법입니다.

"나는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xx 대) 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고 동창회를 위해 회장으로서의 직책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할 것을 미주 전 동문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는 동창회 기의 인수 인계 전에 참석 최 선임 전 회장께서 진행해주시고 잘 Bind 된 동창회 회칙 위에 손을 얹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의제는 평의원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Quorum)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애로를 감안하여 정족수의 하향 조정 방안 검토인데

본 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정족수 때문에 평의원 회의를 소집할 때에 임원진이 걱정을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proxy를 포함하여 60%+ 의 참여율을 기록해온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정족수를 하향 조절하기 보다는 어떻게 참여를 더 장려 할 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소수 의견은 정족수 확보의 애로가 심하여 꼭 필요하다면 회칙을 약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평의원의 종류를 현재의 3종류로 두되

A. 본부 평의원
본부 임원들

B. 지부 평의원
당연 직, 선출 직

C. 전미주 평의원
전직 회장, 종신 이사, 전미주 단과대학 동창회장

으로 하고 의사 정족수(Quorum)는 본부 평의원과 지부 평의원을 합한 수의 3분의 1로 한다. 참석하는 전미주 평의원은 의결 정족수(Quorum for Resolution)의 출석인원에 가산한다.

끝으로 작년도 평의원회에서 Amendment 20를 준비했었으나 시간이 없어 토의를 못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전회의 미결사항으로서 우선적으로 토의해서 통과 해주시면 앞으로 proxy 사용이 더욱 dear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회칙 관련 문의

T. 610-717-7815



이회백 (의대 61)

휴전선 근방 화진포에 가보면 김일성 별장으로 불리는 돌집이 있다. 근처에 이승만 별장과 이기붕 별장도 있어 일종의 관광지가 되어 있다. 나도 2011년 졸업 50주년 기념 동자동창회를 위해 그곳을 가본 적이 있다.

이곳이 한국전 전에는 38선 이북이었던 때라 김일성이 별장으로 쓴 것은 놀랄 일이 못된다. 그런데 이 집이 원래는 화진포 城 (Whajinpo Castle) 이라 불렀고 임자는 Dr. Sherwood and Marian Hall 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 않다. 그 내력을 알아보면 이렇다.

Dr. Sherwood Hall의 아버지는 Dr. William James Hall, 어머니는 Dr. Rosetta Sherwood Hall로서 그의 어머니 Rosetta Sherwood Hall은 1890년 서울에 도착, 그의 기나긴 여성 교육, 특히 여성 의학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Dr. William Sherwood Hall은 그 이듬해 1891년에 도착, 1892년에 그들은 결혼하였다. 이는 서양인이 한국에서 결혼한 첫 번째 기록이 되었다.

이 부부는 함께 평양에서 어려운 선교 사업을 의술을 통해 펼쳤다. 그들의 의료사업은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으로 인해 중단되고 서울로 철수했다가 William은 전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평양으로 다시 갔다가 과로와 typhus fever에 걸려 사망했다. 1893년에 출생한 그들의 아들 Sherwood는 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대학과 의학을 캐나다에서 마치고 의사가 되어 그의 출생지인 한국에 그의 의사 아내인 Marian과 같이 1926년에 와서 자기 부모의 의료 선교사업을 이었다.

그는 주로 결핵 퇴치운동을 벌였는데 해주에 결핵 요양소(sanatorium)를 세우고 한국 최초로 Christmas Seal을 발행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셀이 성공하는 것을 본 그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데도 한국에서도 성공하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셀을 먼저 시작한 곳은 덴마크였다. 즉 덴마크도 결핵이 큰 문제였던 것이다. Verdi의 오페라 La traviata의 여주인공 Violetta가 폐결핵을 앓고 있어 기침을 하며 죽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물론 우리는 더 심했다. 전 세계 결핵율이 인구 20명 당 1명인데 비해 우리는 5명 중 한 명이 결핵 환자였다. Dr. Sherwood Hall이 결핵 퇴치를 그의 평생사업으로 삼게된 계기는 자랄 때 친하게 지냈고 Sherwood의 어머니 Rosetta가 미국에 데려가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어 돌아온 Esther Pak(김정동)이 10년 후 결핵으로 사망한 것을 본 것이었다.

돌아온 Sherwood는 해주에 결핵 요양소를 설립했다. 이를 설립하는 데는 난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금 문제는 여러 문제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한가지 문제만 예로 들면 전염병 환자를 자기 지역에 오지 못하게 하려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자기 동

김일성 별장

네 근처에 형무소나 마약 환자 치료소를 반대하는 이곳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또 토지 소유자를 압박하여 못 팔게 하려는 주민들, 과도하게 요구하는 토지소유자. 이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설립한 요양소는 많은 결핵 환자를 죽음에서 구해냈다.

그러자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차별적인 미국 이민 정책에 불만이 높아지고 이어 파로 선교사도 스파이로 모는 등 갖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불안해진 미국 감리교 선교부는 선교사들에게 철수할 것을 권했다. Dr. Sherwood도 1940년 귀국하기로 결정 자산을 정리하고 이별 인사를 하는 등 돌이킬 준비를 하던 도중에 선교 본부에서 귀국하는 대신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자 전생애를 선교 사업에 바치기로 결심한 그인지라 주저 없이 수락한 그는 일본에서 미국행 선박 대



Dr. Hall 김일성 별장

신 인도행 선박을 타고 인도로 향했다. 인도에 간 그는 결핵 퇴치 운동을 1963년까지 계속했다. 그가 일제에 의해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23년을 더 한국에서 일했을 것이다. 일제를 원망할 이유가 또하나 늘었다.

Dr. Sherwood와 Marian은 원산 해안 휴양지에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간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더니 1937년 일본은 원산 해변(명사십리)을 "금지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내륙으로 이동하라는 포고령을 내렸다. 일본은 철거한 이들에게 옮길 새로운 지역을 설정했다. 이곳은 한편은 해변을 끼고 다른 편은 호수를 바라보는 곳이었다. 일본인들은 이 호수를 "Kashinoh"라고 부르나 우리는 이곳을 화진포(花津浦)라고 불렀는데 Sherwood는 이곳이 스위스의 Lake Lausanne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그들은 원산 명사십리에서 즐기던 파도소리를 못 듣게 된게 아쉬웠으나 자기들에게 배당된 호수로 향한 언덕의

경치를 즐거움에 대신했다. 언덕을 오르내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덕에 경치가 좋은 언덕이 나자 그들은 열린 이를 택했다. 우리들은 젊어서 이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군사당국이 물어준 돈으로 이성한 Sherwood는 뜯어서 자료를 다시 조립하여 거처를 마련했다. 원산 해변은 다이내마이트로 폭파시켜 나무조각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918-1919년 러시아 혁명기에 많은 백계 러시아 망명인이 한국에도 와 선교사들도 이들과 사귄 기회가 있었다. 또한 Hitler를 피해온 독일인들도 많았다. 이들 중 하나가 Herr Weber다. 그는 젊은 건축가로서 그의 기술을 발휘할 것들을 받아주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기회를 갖고 싶어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요양원인 '해주결핵요양원'을 설립한 닥터 셔우드홀과 닥터 메리안홀. 닥터 홀은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셀'을 보급한 공로자이기도 하다.

망서리던 끝에 겨우 모기소리로 "얼마요?"하고 물었다. 목에 침이 꿀꺽 넘어갔다. 그들의 요구가 공사 규모에 비해 너무나 약소함에 또한번 놀랐다. 그럼에도 내 지불능력은 그들의 요구에 크게 미달한다. 결국 그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떻게? 아무 해답도 찾을 수가 없다. 간신히 나온 말은 "어떻게든지 지불할테니 좀 시간을 주소." 하는 것이었다. Herr Weber의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내 귀를 스치자마자 도망치듯 그 자리를 뛰쳐 나왔다.

이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금이 딸린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나는 이런 사태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다. 이런 경우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항상 허리띠를 조임으로서 그리고 친자에게 도움을 청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엔 전혀 문제가 다르다. 허리띠를 조리는 것으로 해결하기에는 턱도 없었다. 그리고 개인 자부심을 버리고, 물론 버릴 수도 없지만, 설사 체면을 버리고 내 친구나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한들 내 城(castle)을 마련해주기 위해 달려올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내가 차츰한 궁지에서 빠져나갈 길이란 한치도 보이지 않고 마음은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그러자 흔히 위로해주는 말, "하느님은 믿을 만하고 잘 아는 건축업자를 소개해 주었다. 이때는 건축기가 지나간 때라 최소한도만 지급하면 되고 또 농한기라 일꾼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나는 선금도 필요없이 시작하고 완성후에만 지불하면 되게 되어 있었다. 극히 사소한 건설이라 (처음에 생각한 것은 성, Castle이 아니고 작은집, cottage였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완성될 때까지 올 필요도 없다고 했다. 사실 나는 완성되기 전에 와 볼 작정이었는데 너무 바빠와 보지 못했다. 결국 완성된 다음에 와본

나는 놀라 자빠졌다. 내가 생각한 것은 오막집(wee cottage)인데 이건 정말 城(castle)이 아닌가. 내가 놀란 것은 표현할 길이 없다. 시공자와 Herr Weber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들의 자부심을 건드리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기에 내 입에서는 아무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틀림없이 Rhine강에서나 볼 수있는 城(castle), 바로 그것이 아닌가. 여기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땅인데. 바로 탑에서 별들을 쳐다볼 수 있는 그 경치. 탑의 자에 앉아 창문에 비치는 호수를 보자니 마치 배를 타고 망망 대해에 떠 있다는 착각을 가져오지 않는가.

"귀부인께서 특별한 대언회를 열 경우에 쓸 방은 이곳이요?" 뿔뿔한 bay window가 있는 방에 나를 인도하면서 선언하는 Herr Weber는 자랑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벽화로에 붙인 불빛에 산데리아가 화려한 무늬를 짓자 Herr Weber는 낮을 잃고 감상에 젖어 있었다. 청부업자와 Herr Weber가 완벽한 시공을 보여주는 동안 내 머리는 도대체 이를 어떻게 지불한단 말인가로 꽂차 있었다. 나는 자세한 문서계약을 맺지 않은 나를 책망했다.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한 나를 원망했다. 그들이 훌륭한 집, 아니 城(castle)을 지은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Herr Weber가 헌신적인 노력과 고도의 기술을 발휘한 것은 명명백백하다. 그러나 Rhine 강의 城을 이 화진포에 지은 것을 내 호주머니가 담당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

이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금이 딸린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나는 이런 사태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다. 이런 경우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항상 허리띠를 조임으로서 그리고 친자에게 도움을 청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엔 전혀 문제가 다르다. 허리띠를 조리는 것으로 해결하기에는 턱도 없었다. 그리고 개인 자부심을 버리고, 물론 버릴 수도 없지만, 설사 체면을 버리고 내 친구나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한들 내 城(castle)을 마련해주기 위해 달려올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내가 차츰한 궁지에서 빠져나갈 길이란 한치도 보이지 않고 마음은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그러자 흔히 위로해주는 말, "하느님은 믿을 만하고 잘 아는 건축업자를 소개해 주었다. 이때는 건축기가 지나간 때라 최소한도만 지급하면 되고 또 농한기라 일꾼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나는 선금도 필요없이 시작하고 완성후에만 지불하면 되게 되어 있었다. 극히 사소한 건설이라 (처음에 생각한 것은 성, Castle이 아니고 작은집, cottage였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완성될 때까지 올 필요도 없다고 했다. 사실 나는 완성되기 전에 와 볼 작정이었는데 너무 바빠와 보지 못했다. 결국 완성된 다음에 와본



김기훈 (상대 52)

연습과 일류

한자로 연습은 演習과 練習의 두 가지 표현이 내포된 이 단어는 학문, 문학, 기예, 체육, 음악, 직업, 기술, 전문, 권위 등 일류(一流)가 되기 위해 되풀이하여 익히는 과정을 말한다. 다만 전자는 군대나 협대가 실전에 임한 경우를 가상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때로는 연마(練磨, 研磨, 鍊磨)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각 분야에서 능숙한 전문가가 되자면 비상한 결심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연약한 몸발랄이라도 곧은 바위에 계속 떨어지면 끝내 구멍을 뚫는 사실에서 결과를 배울 수 있다. 세계적 스키잉 선수 김연아는 소위 "만 번"에 달하는 연습이 배경에 있었다고 한다. 올림픽 선수들은 4년(또는 그 이상)동안 맹 연습을 계속하고 자기의 모국을 대표하여 5색의 무대에 오른다. 입선인 3등(동메달)과 석색의 4등간에는 불과 1초 또는 그 이하의 차이밖에 안 되는 경우에 직면하는 수가 있다. 스키나 달리기 경기에서 결승점에 도달하기 직전 달리에 통증이 생겨 넘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목격한다.

세계적인 야구 경기는 매년 봄에 따사한 지역에 가서 선수들이 연습을 한다. 2019년 4월 14일 미국 조지아 주 아저스타에서 개최된 프로 골프선수권 시험에서 타이거 우즈가 우승하였다. 이것은 그의 15번째 승리요, 11년만에 이론 깨기의 복귀(Comeback

였다. 2019년 4월 24일/5월 5일자 TIME지의 합병호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한 사람으로 보도되었다. 체육관과 골프장에서 꾸준한 연습을 실천한 결과라고 했다. 5월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훈장"도 받았다.

우리 모두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 여러 번 넘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의 아픔을 겪었다. 내가 아는 음악가(최훈차 교수)는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하여 얼마나 연습을 지속하게 했는지 입술 양끝이 혈어서 상처가 났어도 인내로 고통을 극복하여 결국은 일류가 되었다. 후에는 2개, 때로는 4개를 들고 동시에 연주할 만큼 명수가 되었다. 여러 학교를 방문하고 공연도 하였다. 동시에 그가 창시한 대학합창단 등의 지휘자로 명성이 높다.

명필로 유명한 한석봉은 그의 어머니의 교훈이 컸었다. 때로는 어머니가 떡을 썰면서 아들에게 습자를 연습시켰다. 그것도 초롱불을 끄고 캄캄한 방에서 손수 떡을 썰며, 아들에게는 붓끝만 쓰기를 가르쳤다. 일본의 대기업 회사의 여직원 한 사람은 사장이 어느날 "글씨가 엉망"이라는 평을 듣고 곧 분발하여 자나 깨나 맹연습을 하여 마침내 습자의 교본을 출판할 만큼 달필이 된 예도 있다. 아일랜드 태생의 쇼(George B. Shaw)는 그의 연구 원고를 일곱 번이나 수정하였다. 역사의 대가인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12권에 달하는 그의 거작 "역사

의 연구"의 마지막 책은 재고(Reconsideration)라는 제목으로 그전에 출판한 자기 저서를 스스로 검토, 연구, 고찰, 평가하여 수정까지 하였었다.

뉴욕시의 Radio City Music Hall에서 매년 다른 무용으로 한 치의 틀림도 없이 멋진 춤을 보여주는 여성 무용가들. 우리나라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각각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의장대의 시범은 질서정연한 묘기를 보여주는 행사이다. 이북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수천명의 매스게임으로 장관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소마 보리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불허하여 연습시키는 강제행사로 많은 방광염 환자를 배출하는 결과도 보도되었다. 대형 여객기의 조종사들은 당초 공군에서 조종사로 훈련이 되어 민간항공에 공헌이 크다. 어느 소년은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한다는 고백도 있다.

악대나 합창단도 계속 연습을 한다. 수십 명이 모여 연주할 때에 자기만의 소리가 좋아 서는 안 된다. 전체의 화음을 위하여 지휘자의 지도에 따라야 하며, 육성이나 악기의 독보적 장군은 금물이다. 이태리 출신의 세계적 지휘자 토스카니니(Arturo Toscanini, 1867-1957)가 한 번은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습 중이었다. 제일 바이올린부원에게 따로 연주하라고 했다. 틀린 음이 나오기에 다시 반복시켰다. 악보에 따라 그대로 연주했지만 여전히 음이 달랐다. 후에 알고 보니 바이올린 연주자의 잘못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틀린 악보를 인쇄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가장 토스카니니는 교향곡 전체를 외웠기 때문에 한 치의 오류까지 지적할 만큼 천재적인 지휘자였다. 얼마나 연습을 하였기에 비상한 기억력의 소유자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화이다.

허준이 펴낸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름난 한의학의 표본이며, 꾸준한 시행착오와 고심, 노력의 결정(結晶)이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 등 우리나라를 빛낸 일류 대가(大家)들의 일부적 예에 불과하다. 나아가서 세계적인 명인, 일류로 역사에도 남은 기술자, 전문가, 발명가, 발견가, 예술인, 문학가, 음악가, 사업가, 교육가, 지도자, 요리사, 탐험가, 전문가, 운동선수 등의 지속적 연습의 결과로 인류에게 무한의 혜택을 남겨주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늘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지 않는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제자"지망생으로 배우기를 원하면 예외 없이 언제나 세가지 단어를 가르친다고 한다. 즉 "Practice! Practice! Practice!"이다. 어떤 과정이건 연습, 연마, 수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도통(道通)의 경지에 이르는 결과이다. 목표의 선정 → 실천 → 노력 → 인내 → 성취 → 회고 → 검토 → 수정 → 확인의 경로를 거쳐 권위자가 된다. 그리스의 철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격려한다. 나는 그를 모방하여 "연습과 훈련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추가하는 바이다. 영어로 운율이 맞는 표현에 No gains, without pains 라는 교훈이 있다. 모든 면에서 고통이나 노력 없이는 지식이나 기술, 성공을 터득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진정 "경험을 추월(追越)하는 실수는 없다"라고 나는 단언한다. 지금은 지적소유권, 전 매특허권 등 국제적인 인정까지 받고 있다. 인간자본의 형성으로 일류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연습의 참 뜻을 알게 되려니!

센트럴 커네티컷 주립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 미동부 한인 문인협회 회원

을 맞은 것은 1945년이요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 선포된 해가 1948년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한게 1950년이니 김일성이 화진포에 있는 城에 와서 자고 간 것은 해방 후 다음날부터였다고 쳐도 5년이 못 되고 기껏해야 3년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그 城을 김일성 별장이라 부르는 게 타당한지 나는 묻고 싶다. 지금의 미국 국립묘지 "Arlington National Cemetery"는 원래 소유자가 Robert Lee이었는데 1861-1865년 남북전쟁(Civil War) 중 연방정부(북부)가 작전지로 쓰다가 전사자의 묘지로 쓰게 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연방정부가 무단점거(squatter)한 셈이다. 물론 전쟁 중에 Robert Lee가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할 형편이 안됐을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후손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듣기에는 이들(plaintiff)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고 원칙을 세우기 위해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쨌든 연방정부는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토지를 삼으로서 해결지었다고 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지금의 Arlington National Cemetery가 Robert Lee Cemetery라고 불려야 될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령 일제말기 마지막 9대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新行)가 이 성 城을 별장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아베 노부유키 별장으로 불려야 될 것인가? 김일성 별장으로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서우도 성 城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일제가 강제징발한 이 城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나 일제가 몰수한 상태로 남아 있다면 그 후손에게서 사서 서우도 홀 기념관으로 만들어 우리 후손들이 이들의 공적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63년에 캐나다로 돌아간 Dr. Sherwood와 Marian Hall은 1984년 91세와 88세의 나이에 한국결핵협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다. 1991년 98세의 생애를 마친 Dr. Sherwood는 그의 출생지인 한국에 묻어달라는 그의 유언에 따라 이장, 양화진 가족묘지에 묻혀있다. 두 세대에 걸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사랑한 이들의 인간애에 감격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으랴. 2019년 2월 9일

Adjunct Professor, Beedie School of Business, Simon Fraser University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 2차 회기: 2017.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전회장단 이월금		총동창회 보조금		총동창회 오찬 협찬		업소록 광고비		지부 분담금 (2018/7~2019/6)		후원금		남가주		뉴잉글랜드		오하이오			
KISS (1/17)	3,000	심상은 (상대 54)	100	정규희 (의대 66)	200	최선희 (문리 69)	200	김동석 (음대 64)	200	고일석 (보건 69)	2,000	김동광 (공대 62)	50	김기훈 (상대 52)	600	김동광 (공대 62)	50	김기훈 (상대 52)	600
NY Golf (6/18)	1,000	오인환 (문리 63)	650	정동구 (공대 57)	500	최찬혁 (의대 57)	500	김성호 (법대 64)	200	고종성 (사대 75)	200	성홍완 (수의 75)	200	유시영 (문리 68)	500	성홍완 (수의 75)	200	유시영 (문리 68)	500
NY Golf (8/9/18)	1,000	유재환 (상대 67)	100	정재훈 (공대 64)	270	최홍균 (공대 69)	2,000	김순길 (문리 61)	200	방석훈 (수의 61)	80	송유재 (의대 63)	200	최은관 (상대 64)	500	송유재 (의대 63)	200	최은관 (상대 64)	500
NY Golf (8/31/18)	1,000	윤상래 (수의 62)	5,600	정희영 (치대 58)	100			김영순 (음대 59)	600	김병국 (공대 71)	65			김병국 (공대 71)	65				
SeAh 이병준	1,500	이건일 (의대 62)	125	조상하 (치대 64)	125			김원탁 (공대 65)	400	김선혁 (약대 59)	100			김선혁 (약대 59)	100				
SNUAA, Inc (남가주)	500	이명선 (상대 58)	500	조한원 (의대 57)	100			김원환 (상대 67)	125	김은한 (의대 60)	1,250			김원환 (상대 67)	125				
SNUAA, Inc (남가주)	700	이원섭 (농대 77)	1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영준 (의대 65)	200	김정환 (공대 52)	200			김정환 (공대 52)	200				
T. H. & Asso.	1,000	김승호 (의대 54)	1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공대 56)	100	김제호 (공대 56)	100			김제호 (공대 56)	100				
김승호 (공대 71)	400	전방남 (상대 73)	2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7)	500	송미자 (농대 62)	65			송미자 (농대 62)	65				
김승호 (12/26)	400	전상욱 (사대 52)	5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수의 62)	40,800	박평일 (농대 69)	600			박평일 (농대 69)	600				
김인중 (181105)	700	전영자 (미대 58)	35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500	윤영자 (미대 60)	100			윤영자 (미대 60)	100				
김진수 (공대 61)	1,000	노명호 (공대 56)	425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11,000	이희인 (공대 68)	1,100			이희인 (공대 68)	1,1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7)	400	이재신 (공대 57)	2,000			이재신 (공대 57)	2,000				
미래에셋 (5-10/2019)	1,8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이희규 (공대 69)	200			이희규 (공대 69)	200				
발진기금 (12/6)	7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전진의	25			전진의	25				
서울대병원 강남 (12/29)	1,5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정선주 (박영철)	3,000			정선주 (박영철)	3,000				
서울대병원 강남 (5/30)	38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1,400	정정욱 (의대 60)	1,400			정정욱 (의대 60)	1,400				
서울대병원 강남 (8/31)	38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900	정태영 (문리 71)	600			정태영 (문리 71)	600				
서울메디칼 (3/15)	1,0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정혜숙 (간호 66)	65			정혜숙 (간호 66)	65				
서울메디칼 (12/26)	1,0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서울메디칼 (4/16)	1,0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김 풀 (수의 81)	48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신용남 (농대 70)	1,2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독고원 (공대 65)	24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박종호 (의대 79)	48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서동영 (사대 60)	48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석창호 (의대 66)	24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신동국 (수의 76)	72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신용남 (농대 70)	24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신혜원 (사대 81)	24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연달용 (공대 69)	48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연동해 (농대 74)	48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윤세웅 (의대)	24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이경림 (상대 64)	72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이경희 (인문 83)	24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이준호 (상대 55)	48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이수호 (보건 69)	48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이종모 (간호 69)	48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이준영 (치대 74)	72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이창석 (의대 72)	4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임낙근 (약대 64)	48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장 준 (인문 85)	48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권철수 (의대 68)	1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김시근 (공대 72)	3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정수만 (의대 66)	24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정영수 (수의 74)	24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정재훈 (공대 64)	72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최은관 (상대 64)	300			김정호 (의대 58)	200										
주기목 (수의 68)	240	노명호 (공대 61) 2/1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members and their dues. Columns include: 남가주 (SANTA ANA), 북가주 (SAN FRANCISCO), 뉴욕 (NEW YORK), and others. Each entry lists a name and a corresponding amount or status.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members and their dues. Columns include: 공군속 (KANGUNSOOK), GA/AL/MS, 조진태 (CHOJINTAE), and others. Each entry lists a name and a corresponding amount or statu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Table with 4 columns: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Each column lists contribution amounts and options.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재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Includes E-mail and 주소 (Address) fields.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 (LA)
(714) 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A, CA 90010

임춘택 공인회계사 (상대 68)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s
김원철 (농대)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KOOG WON KWUN CPA & ASSO, INC
권국원 (공대)
Tel. (213) 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os Angeles, CA 90005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el. 323-965-1717 / Fax)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CareMax Pharmacy
Chang H. Yoo, RPh./ Dr. 유창호 (약대 74)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Cell: 909-229-777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 #103, LA, CA 90006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a@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essa, CA 90630
jchung@taycoeng.com / www.taycoeng.com

Leedco Engineers, Inc.
Dr. Lee, Chong Do. Dennis
이종도 (공대 66)
Tel: (626)448-7870 / Fax: (626)448-3955
leedco@aol.com
3870 Baldwin Avenue, El Monte, CA 91731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 (909) 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명문 (수의대 64)
Tel.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인문 75)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 83)
Tel. (213) 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E-mail: iminusa@iminusa.net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510) 224-0760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중 (문리대 61)
Tel. (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os Angeles, CA 900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irect: 213-262-3805, T: 213-262-3800,
F: 213-262-3810, Mobile: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광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공률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GA 조지아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광고주를 모십니다.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중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광고주를 모십니다.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 #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usajour.com
문의: D.C. 상풍권
백옥자 (Jace Lee) 213-388-4000, 818-395-1967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77명)

[종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 \$6,000 이상
(5) 골드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남가주
김신용 (사대 73) 김동훈 (의대 71) 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선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뉴욕
김광호 (문리 62) 오인석 (법대 58) (G)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택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G)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
미네소타
김권숙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워싱턴 DC
김기현 (사대 53) 류재풍 (법대 60)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중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미안텍 (의대 52) 주기목 (수의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종신이사 (교인)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정태영 (문) 편집 위원: 윤용훈 (공), 홍선례 (음), 정태영 (문), 이정수 (공), 백옥자 (음) 이영인 (사), 장수인 (음), 김제성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허유선 (가정), 한정민 (농), 배지선 (수)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 위원회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홍 (법), 이석구 (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원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SN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Feb-Jan
	차기회장	민일기 (약대 69)	dauidmin920@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윤은상 (상대 66)	978-886-5989 eunsang_yoon@uml.edu	Jul-Jun
	차기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신욱인 (농대 87)	619-726-7820 wookin.shin@cbpnt.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병윤 (문리 65)	847-951-3297 jacobkimby@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래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503-253-0887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병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ungyul04@comcast.net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설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무식 (수의 61)	267-242-5097 msjeon41@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차기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권오을 (상대 56)	y.kwon@griffith.edu.au	Jan-Dec
	부회장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 미래에셋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 미래에셋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경험하세요.

Services offered

Wealth Management and Investment Banking

최경석(사대 80)

상담 및 문의 (213) 262-3800
(213) 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90010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is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This message is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Advisory services are only offered to clients or prospective clients where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and its representatives are properly licensed or exempt from licensure.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returns. Investing involves risk and possible loss of principal capital. No advice may be rendered by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unless a client service agreement is in place. Member FINRA, SIPC.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일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싱글맘,
이제 좋은 짝만 있으면 되겠죠?

결혼해 듀오

DUO USA 3701 Wilshire Blvd. #1122, Los Angeles,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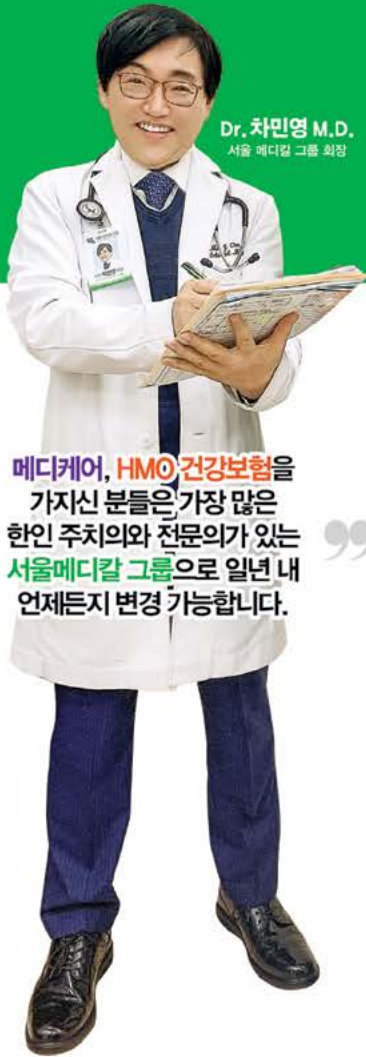
듀오
LA 213-383-2525

2만명 시니어 어르신 여러분! 왜 다들 서울 메디칼 그룹으로 가입하시길 원하십니까?

예방 의학도 최고!
“ 치료 의학도 최고! ”
전문의 리퍼도 최고!

시니어분들의 건강 지킴이 서울 메디칼 그룹의 주치의들입니다.
주치의도 전문의도 크고 탄탄한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275 여명의 주치의 | 2875 여명의 전문의



Dr. 차민영 M.D.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

“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있는
서울메디칼 그룹으로 일년 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이선우 M.D.	백상현 M.D.	이영직 M.D.	강수웅 M.D.	백성렬 M.D.	한경모 M.D.	김동훈 M.D.	조지인 M.D.	배호섭 M.D.	
한경모 내과	차민영 내과	조지인 가정주치의	백상현 내과	이영직 내과	강수웅 내과	배호섭 위장내과	로리안 가정주치의	강훈구 가정주치의	정만길 내과
이선우 내과	김영진 내과	손향은 내과							
정희수 내과	이동현 내과	카렌김 내과	김다이아나 내과	윤은주 내과	김일영 내과	김승현 내과	조동혁 내과	송명재 내과	변성래 가정주치의
알버트안 내과	권평일 내과	임대순 내과	신동원 내과						
김민성 내과	이용태 내과	에릭 슬루더버그 가정주치의	홍석은 내과	빅터 공 내과	위안 리우 가정주치의	벨슨 로잘레스 가정주치의	조아라 내과	임영빈 내과	김도영 내과
강수웅 내과	간 김 가정주치의	로버트 하 내과							
폴 장 내과	김홍식 내과	홍훈기 내과	리처드 한 내과	송채원 내과	오문목 가정주치의	김방선 내과	이광혁 내과	안우성 내과	안규동 내과
김진세 내과	박재만 내과	박수영 내과	제이슨 방 내과						
백성렬 내과	변상준 내과	오희용 내과	김재명 내과	석태영 내과	강대욱 내과	박병국 가정주치의	피터 정 가정주치의	이상기 내과	정한규 내과
박미란 가정주치의									
이부웅 내과	조기석 내과	조윤정 내과	장국일 내과	유경수 가정주치의	임덕 내과	이명훈 가정주치의	최청원 내과		
강대욱 내과	박병국 가정주치의	피터 정 가정주치의	이상기 내과	정한규 내과	박미란 가정주치의				

이 외에도 서울 메디칼 그룹의 많은 주치의들이
다양한 의료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213.389.0077 • 1.800.611.9862
520 S. VIRGIL AVE., #107, LOS ANGELES, CA 90020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전문의 허가(Referral)**가
아주 빠른 서울 메디칼 그룹을 택하시고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으세요!

